

2015 Vol.56

경북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Gyeongsangbukdo Medical Association

병원 입주를 환영합니다

거상빌딩 임대

층별	등	실평수	추천
3층	본관	120평	병원
4층	본관	120평	병원
1층	별관	12평	약국
2층	별관	102평	병원

- 본관 5~6층에 산후조리원 위치(22개룸 완비)
- 별관2층 앞 넓은 테라스 공유로 휴게공간 활용
- 본관 1층 국민은행 입점 성황리 영업중
- **약국 및 병원 동시입주 환영**



찾아오시는 길 (옥계사거리 LG베스트샵 옆)



1. 거상빌딩은 80대이상의 **완벽한 주차시설**(지하주차장 및 타워 주차기)이 완비되어 있고, 승강기 2대 운영중
2. 옥계동은 구미시의 또다른 신도시로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상태**(현재 50,000명에 육박)
3. 5공단 토목공사가 완료되었고, 아파트 신축공사 및 공장건설이 활발하게 진행중인 상태
4. 현재 거상빌딩에는 **식당 및 커피숍 등 편의시설과 국민은행, 산후조리원 등이 입주**하였으며,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안과, 성형외과 등의 입주를 희망합니다.
5. 거상빌딩은 엄선된 자재만으로 건축된 세련된 건물이며, 이에 비해 임대료는 가장 저렴하다고 자부합니다.

건물임대 문의

054) 475-8785 / 010-6431-8076

경북의사회보

2015 Vol.56

Contents



- 04 취임인사**
우리는 서로 단합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 김재왕
20% · 김광만
안정 속의 혁신을 통한 강한 의협 · 추무진
회원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의원회를 만들겠습니다 · 임수흠
- 08 감사인사**
지역, 직역, 세대, 전문과별 회원 모두 한 목소리를 내도록 밀거름이 되겠습니다 · 정능수
- 09 회무(포토)소식**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서 김재왕 회장 · 김광만 의장 선출
제43대 신임회장 및 제16대 대의원회 의장 취임식
제67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서 분회 모범지부 표창
'제37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성황리 개최
분회 의협 중앙회대의원 직선제로 선출
- 26 회무단신**
- 30 회원동정 · 의료기관 개원현황**
- 31 분회 및 병원소식**
- 33 메르스 대응 관련 홍보자료**
- 39 공지사향**
- 40 수상자에게 듣는다**
제6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 42 기획특집**
경상북도의사회에 바란다 · 임원소감
- 50 의학 및 건강칼럼**
고산병 바로알기 · 김동선
- 58 회원문예**
수 필 _ 영천, 우로지(牛老池)에서 · 박송훈
벗꽃을 따라, 아이가 달린다 · 서역수
돌나물 · 이종규
조선시대 표류기 · 김종규
산 행 기 _ 무박 화대(華大) 종주기 · 노진우
행사후기 _ 제23회 기초의학학술대회 경주에서 성황리에 마쳐 · 임현술
弗 詞 _ 故 김석곤 원장님을 그리며 · 최경수
사 진 전 _ 힌두사원에서 만난 소녀 · 김성우
- 76 회무정리**
제42대 집행부 3년 주요 사업성과보고

발행인 김재왕 편집인 권준영 · 서의태 편집위원 노진우 · 장필식 · 권준영 · 정재엽 · 서의태 발행일 2015년 6월 10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홈페이지 www.igbma.or.kr
 제작처 선진애드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88길 24 TEL. (053)555-3336 FAX. (053)556-3273

주요연중 행사일정	연월일	행사명	연월일	행사명
	2015. 4. 1	경상북도의사회 제42대 집행부 회무시작	2015. 10.	제3회 경상북도 보건단체 골프대회
	2015. 4. 7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5. 10. 17~18	제30회 경북 · 전북의사회 친선행사(전북)
	2015. 4. 26	대한의사협회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2015. 10.	2015년도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2015. 5. 1	2015년도 회원정기신고 실시	2015. 11. 1	2015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경북대학교병원)
	2015. 5. 16~17	제37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춘계종합학술대회,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2015. 12.	시군의사회와 연계한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5. 6. 10	제56호 경북의사회보 발간	2016. 1. 15	제58호 경북의사회보 발간
	2015. 7. 21~26	경상북도 보건단체 해외의료봉사(캄보디아 프놈펜)	2016. 2. 27	2015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회장회의
	2015. 9. 6	제4회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마련 골프대회	2016. 3. 8	2015년도 회무감사
	2015. 9. 30	제57호 경북의사회보 발간	2016. 3. 26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우리는 서로 단합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김재왕 회장
경상북도의회
(김재왕내과의원, 안동)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3대 경상북도의회사회 회장을 맡게 된 김재왕입니다.
돌이켜 보면 안동시의사회 이사를 시작으로 23년의 긴 시간을 의사회의 일을 해왔으나 회장은 그 책임이 막중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벼차다고 생각하여 고사와 주저를 하였지만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들은 청운의 꿈과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으로 의과대학을 진학하였고, 고된 학업속에서도 낭만과 인류애를 가지고 의사의 길을 걸어 왔으며, 땀땀하고 힘든 학업과 수련과정 속에서도 전우와 같은 동료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분열과 무관심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져 있습니다. 또한 OECD 꼴지에 가까운 수가는 물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원격진료, 리베이트 쌍벌제, 아청법, 최근엔 무자격자의 의료시술과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 사용까지 교과서적인 진료를 어렵게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선후배이며 동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단합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서로가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합의 바탕위에 저는 몇 가지를 새롭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정책에 관심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문제점 지적과 함께 그 대안까지를 의논하는 장을

활성화 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활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민건강교육, 학교보건교육에 우리 의사회가 스스로 참여하여 우리가 주민속으로 들어가는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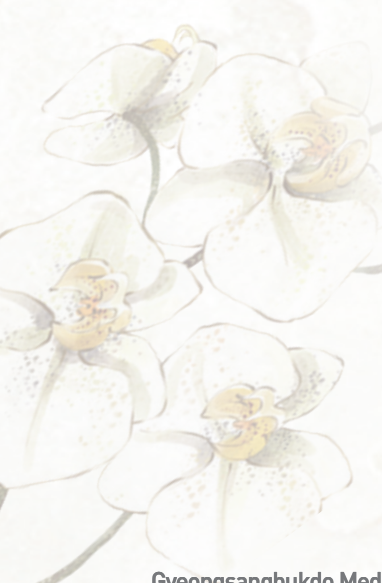
세번째는 오래전부터 대의원 분과토의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호위원회와 같은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바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강관련 사안에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자리를 되찾자는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사안에 대국민 의료관련 발표를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어렵게 발족하는 국민건강위원회가 제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임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인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료사고나 실사와 같은 다급한 회원의 민원에 적극 대처하는 등 회원의 불편에 귀 기울이는 통상적 업무에 더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각오는 회원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애정이 담긴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상북도 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허락해 주신 제43대 집행부 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지역에서 저희 임원이 된 선생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김 광 만 의장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지곡그린의원, 포항)

요새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저도 어찌다보니 연임하게 되어 재수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고등학교 때 재수하는 친구들 많이 보았지요? 아님 아이들 키우면서 어쩔 수 없이 재수시켜 보았지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재수하면 20%는 성적이 올라가고 30%는 도진개진(표준말은 '도진개진' 이라죠)이고 50%는 하향곡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20%에 들어가려면 학교 다닐 때보다 잠도 더 적게 자고 밥 먹을 시간도 아껴야 했습니다. 요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향후 3년간도 의협호는 결코 평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원격의료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고 달빛어린이병원, 주치의제도 등으로 계속 조여오고 있습니다. 또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대해 시위하고 국민들에게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난 4월 26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선된 추무진 회장의 취임식이 있었으며, 직선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해서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부회장 및 감사들이 새로 뽑혔습니다. 모든 힘을 모아 외부로 방출하려면 이번에 뽑힌 내부인사들이 똘똘 뭉쳐야 합니다. 밥이 되든지 죽이 되든지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에 저도 미력하나마 제 한힘을 힘껏 보태려고 합니다.

지나간 3년 동안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끼리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다가 선공을 상대편에 넘겨준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의협 100년 대계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회장을 위시해서 회원 한분 한분까지도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사회에서도 3년간 수고하신 정능수 회장님을 비롯한 제42대 집행부가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유능하신 김재왕 신임회장님을 비롯하여 새 집행부가 들어섰습니다. 한두 달이 지난 지금, 벌써 활약이 대단합니다. 저는 지난 번 회기와 마찬가지로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집행부를 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또 중앙에서도 의협 집행부를 열심히 도와 우리의 당연한 의권을 찾는 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정능수 전 회장님도 이번에 의협의 감사로 피선되어 저와 마찬가지로 의협의 정상궤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실 것입니다.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관심과 참여만이 빠져가는 의협호를 다시 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 감사보고를 보니 의협이 파산 직전이더군요. 회비는 회원의 의무입니다. 육할 때 육하시더라도 회비를 내고 육하셔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의협과 의사회가 그나마 굴러갑니다. 그리고 무관심은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의협회장과 도의사회장의 힘을 빠지게 합니다. 따뜻한 눈길도 한번 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 질타도 해주시고 잘 하면 칭찬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반모임을 비롯해서 모든 행사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진심어린 박수도 보내주십시오. 저도 앞으로 3년 동안 서두에 말씀드린 20%에 들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지켜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정 속의 혁신을 통한 강한 의협



추 무 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경상북도사회와 의료계의 다양한 소식을 담은 제56호 경북의사회보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보발간을 통해 각 지역 회원은 물론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역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을 상호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결속력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경상북도의사회 김재왕 회장님과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회원님들의 지지로 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재선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집행부에서 펼친 활동을 중단 없이 수행해, 결실을 맺으라는 회원님들의 염원과, 반대편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우리 내부의 반목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하고 단결하라는 준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안정 속의 혁신을 통한 강한 의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익단체로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의사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것이 의사도 살고, 국민도 사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협회를 주축으로 하여 의료계가 하나 되어 올바른 의료제도와 의료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 임기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희망의 단초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전략과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배, 동료, 후배 의사들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사회 회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협회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해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의 미래를 만드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상북도의사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의 뜻이 우리 협회를 통해 하나로 모아져서, 회원님들께 행복한 진료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의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임수흠 의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대의원회 의장 임수흠입니다.

신록의 계절 5월에 여러분의 가정과 진료실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대의원회를 이끌어 갈 막중한 책임과 소임을 맡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화합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권익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제28대 의장으로서 임기 시작과 함께 대의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 스스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회원님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KMA Policy의 안착을 통한 대한의사협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사방에 흩어져 단절된 의료 정책들을 한데 모아 대한의사협회가 내세울 수 있는 고유한 정책·확고한 정책·검증된 정책들을 시급히 정립하고 통합해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의사협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KMA Policy 구축이 필요하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의 기준을 만들고, 치료행위의 기준을 만들고, 의료윤리의 기준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의협의 권위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후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만들어 나가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얻어낸 의정협의 사안을 현실화시켜 궁극적으로 회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저도 그 동안의 의료계 실무 경험과 능력, 협상단장으로서의 경험을 다 동원하여 집행부의 대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참고가 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여 지지하고 돕겠습니다. 규제기요틴과 원격의료 저지, 리베이트 쌍벌제 등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젊은 의사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정책과 같이 의료계의 당면한 어려운 현안에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대의원회에서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이 진정 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의원회로 변모하겠습니다. 대의원회 고유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4개 분과위원회별로 상시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즉각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분과 대의원들과 집행부 각 해당 이사들이 수시로 협의하고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기르고 언제든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KMA Policy와 연계되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만이 아니고 상시로 정책과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어, 굳이 총회 당일 분과심의로 시간에 쫓겨 줄속으로 끝내지 않고 총의를 분명히 확인하는 이른바 축제의 한마당인 정기대의원총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 회원님!

위에 언급한 당면과제를 완성하는 것이 저와 대의원 모두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고 이를 완수하기 위하여 의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스스로 회원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의원회를 만들기 위하여 차근차근 한분한분 여러분들을 뵈고 조언을 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직역, 세대, 전문과별 회원 모두 한 목소리를 내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정 능 수

제42대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제21대 대한의사협회 감사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까?

제42대 경상북도의사회 회장으로서 지난 3년을 뒤돌아 보면 회원여러분과 집행부 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었기에 무사히 회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 임기동안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모범지부상을 두번 수상한 것 또한 경북의사회의 영광입니다.

경상북도의사회 42대 집행부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화합, 기부문화와 봉사활동을 통한 존경받는 의사상 확립 및 선도적 의료정책을 입안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회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10개시, 13개군 의사회 모두를 방문하여 화합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을 만나볼 때는 저의 가슴은 무척이나 벅차게 뛰었으며,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시던 울릉군 보건의료원 근무 회원들과 경북북부교도소 근무 회원들과 만남을 가졌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존경받는 의사상 확립을 위해 어렵게 시작한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는 두 번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3차례의 사회공헌활동 및 의료봉사기금마련 골프대회도 성황리에 개최되어 많은 봉사기금이 모금되기도 하였습니다. 모금활동에 동참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외 구미 불산 사고 피해지역 주민의료봉사, 태풍 하이엔 피해 필리핀 결혼이민여성 후원금 전달, 캄보디아 아기의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지원, 경북의사협회 세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등이 기억납니다.

또한 경상북도의사회 42대 집행부는 농어촌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청소년기 문제해결과 학부모를 위한 의사의 역할,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 및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의 의료정책들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협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경북의사회의 입장을 밝히고 회원권익을 위해 동분서주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역사적 순간들을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의료제도바로세우기 비대위원, 의료계대통합 혁신위원, 규제기요틴저지 범의료계 비대위원을 거치면서 의료제도 개혁과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의료계의 업히고설킨 실타래를 제대로 풀기위해 22년의 의사회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회원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의 마음으로 의협 감사선거에 출마하여 지난 67차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제21대 감사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의협의 발전을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참으로 많습니다.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11만 회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의료계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3년간 경상북도의사회 제42대 집행부를 지켜봐 주시고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3,200여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로 드리며,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지역과 직역은 물론 세대별, 전문과별 회원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서 김재왕 회장·김광만 의장 선출

제6회 학술상 및 봉사상 시상, 신년도 예산 4억 9000만 원 심의·의결
의료규제 기요틴 정책 중단 성명서 채택, 중앙회대의원 직선제 위한 회칙 개정

본회는 지난 3월 21일(토) 오후 6시, 호텔 인터불고 대구 클라벨홀에서 대내외 주요내빈과 대의원 56명(재적 80명),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3대 김재왕 회장과 제16대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을 선출하였다.

제6회 학술상 및 봉사상 시상에는 동국의대 이관 교수(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가 학술상을, 청강장학회(회장 이석균·박경희)가 봉사상을 수상했으며, 김석곤·김하균 회원이 대한의사협회장 표창을, 이우석·문상웅·도황 회원이 경상북도지사 표창, 포항시의사회·의성군의사회가 모범분회 표창을 수상하였다.



회칙개정에서는 중앙회대의원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의 회칙 및 세칙과 선거관리규정에서 중앙회대의원 9명 중 고정대의원 2명(대의원회 의장, 회장)을 제외한 비례대의원 7명에 대해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 01 이석균 윤리위원장의 의사윤리강령 낭독
- 02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의 개회사
- 03 정능수 회장의 인사
- 04 이철호 의협부회장의 축사
- 05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축사



- 01 경북지사 표창(도황 · 문상웅 · 이우석 회원)
- 02 의협회장 표창(김석근 · 김하균 회원)
- 03 모범분회 표창(포항시 · 의성군의사회)
- 04 본회회장 표창(대내의 유공자)
- 05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유공자표창

의결하였으며, 중앙회대의원 선출은 경북동부권(1, 2선거구) · 경북서부권(1, 2선거구) · 경북남부권(1, 2선거구) · 경북북부권으로 나누어 선거를 진행키로 하였다. 통과된 회칙 개정안은 ▲중앙대의원은 고정대의원과 비례대의원으로 선출 ▲고정대의원은 본회 대의원회의장과 회장으로 선출하고, 비례대의원은 선거구별로 회원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유고나 결원시를 대비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구별로 차점자를 교체대의원을 선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세칙 개정안은 중앙회대의원선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제4장 대의원 선거)에 따르는 것으로 했으며, 세칙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키로 했다.

2014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 491,835,834원과 신년도 사업목표 14개 안을 뒷받침하는 예산 490,000,000원을 보고받고 대의원들의 이의없이 박수로써 통과시켰으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정액제 상향조정 △건강보험 차등수가제 폐지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 문제 해결 △출장건강검진 및 불법예방접종 근절 △원격의료 반대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도입 △의료일원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의사 보건소장 임명요청 △요양병원 야간 당직의사, 의사 자격 한정 △국민건강을 위한 아젠다에 핵심역할을 할 것 등을 채택하였다.

제16대 대의원회 의장과 제43대 회장 선거 공고결과 대의원회 의장에는 현 김광만 의장이, 회장에는 김재왕 현 부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함에 따라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부의장 · 부회장 · 감사 · 중앙이사 선출은 전형위원회를 열어 부의장에 김광인 · 김종영 대의원을, 부회장에는 장유석 · 도황 · 류성훈 · 이동석 · 노진우 · 정선희 · 이우석 회원을, 감사에는 박봉기 · 하달봉 · 이재흠 회원을, 중앙이사에는 이우석 회원을 선출하였다.



끝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무시하는 의료규제 기요틴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도 채택하였다. 성명서에서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초법적인 의료규제 기요틴 정책을 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만을 따진 일방적이고 잘못된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하는 무리한 정책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 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한 뒤 △의료 근간을 훼손하려는 의료규제 기요틴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 및 처방을 허용하는 것과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시술 및 문신행위 허용을 강력히 반대 △정부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을 해야 한다면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학문적인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서]

- 1) 세입총액 ₩ 491,835,834원 (자 : 2014. 4. 1)
- 2) 세출총액 ₩ 491,835,834원 (지 : 2015. 3. 31)

■ 총괄표 (단위 : 원)

세 입 부			
과 목	예산액	결산액	비교(Δ감)
회 비	370,500,000	370,400,000	Δ100,000
기타수입	59,689,227	63,625,061	3,935,834
이 월 금	57,810,773	57,810,773	
합 계	488,000,000	491,835,834	3,835,834

세 출 부			
과 목	예산액	결산액	비교(Δ감)
사업비	177,000,000	161,924,870	Δ15,075,130
회의비	19,000,000	19,162,500	162,500
판공비	28,000,000	28,000,000	
경조비	18,000,000	16,420,000	Δ1,580,000
활동비	44,000,000	39,780,000	Δ4,220,000
사무비	122,066,000	120,276,720	Δ1,789,280
적립금	20,000,000	20,000,000	
수용비	35,200,000	31,119,734	Δ4,080,266
예비비	24,734,000	8,000,000	Δ16,734,000
이 월 금		47,152,010	47,152,010
합 계	488,000,000	491,835,834	3,835,834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서]

- 1) 세입총액 ₩ 490,000,000원 (자 : 2015. 4. 1)
- 2) 세출총액 ₩ 490,000,000원 (지 : 2016. 3. 31)

■ 총괄표 (단위 : 원)

세 입 부			
과 목	2015 예산액	2014 예산액	비교(Δ감)
회 비	386,150,000	370,500,000	15,650,000
기타수입	56,697,990	59,689,227	Δ2,991,237
이 월 금	47,152,010	57,810,773	Δ10,658,763
합 계	490,000,000	488,000,000	2,000,000

세 출 부			
과 목	2015 예산액	2014 예산액	비교(Δ감)
사업비	177,000,000	177,000,000	
회의비	20,500,000	19,000,000	1,500,000
판공비	28,000,000	28,000,000	
경조비	18,000,000	18,000,000	
활동비	44,000,000	44,000,000	
사무비	124,786,000	122,066,000	2,720,000
적립금	20,000,000	20,000,000	
수용비	36,200,000	35,200,000	1,000,000
예비비	21,514,000	24,734,000	Δ3,220,000
합 계	490,000,000	488,000,000	2,000,000





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 상정

1.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정액제 상향조정 건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진료비 상한액(15,000원) 초과로 인해 진료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환자 및 의료기관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인부담 정액제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20,000원)하여 줄 것을 건의

2. 건강보험 차등수가제 폐지 건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시작됐던 차등수가제는 유일하게 일차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가중시키는 제도이므로 폐지하여 줄 것을 건의

3.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 문제 해결 건의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매년 의료급여비가 지연 지급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에 따라 지연 지급액에 대해 법정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을 건의

4. 출장건강검진 및 불법예방접종 근절 건의

원거리, 바리다메식 출장검진 실시로 국가건강검진 질 하락과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 연계의 혼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출장건강검진과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 또는 의사의 진찰 없이 단체예방접종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인하는 행위 근절 건의

5. 원격의료 반대 건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료를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만 간주하여 의료의 본질훼손과 심각한 부작용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성만을 앞세운 상업적 발상에서 시작된 작금의 줄속적인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반대 건의

6.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도입 건의

국민부담과 불편만 가중시키는 의약분업을 재평가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가 조제 받을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직능분업을 도입하여 줄 것을 건의

7. 의료일원화 건의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재 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의료형태와 면허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제도를 일원화 해 줄 것을 건의

8.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건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규제철폐 차원이 아닌 원칙에 대한 문제로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 입증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민건강에 미칠 위험성이 대단히 크므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

9. 의사 보건소장 임명 및 의무사무관 직급 신설에 관한 건의

2015년 2월 경주시보건소장의 이동으로 지역보건법을 무시한 채 경주시 조례에 따라 별도의 임용공모 절차도 없이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보건직공무원을 경주시보건소장에 임명하였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보건소장이 임명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보건소장을 국가직으로 임용토록 건의

또한 의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의무사무관 직급(시도의 보건과 계장급, 시군의 보건소 과장급)을 추가 신설하여 줄 것을 건의

10. 요양병원 야간 당직의사, 의사 자격 한정 건의

요양병원 야간 당직에 의사가 아닌 한의사, 치과의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응급처치능력이 없는 의사 이외의 자격 소지자는 환자들에게 위해 할 수 있으므로 당직 근무는 의사로 자격을 한정하여 줄 것과 요양병원 의사 등급제 폐지를 건의

11. 국민건강을 위한 아젠다에 핵심역할 건의

국민건강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매스컴과 일부 사이버스타 의사들이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계의 중요한 아젠다에 대해 즉시 정확한 전문가적 견해를 발표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의협 산하에 (가칭)국민건강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

12. 기타



제43대 신임회장 및 제16대 대의원회 의장 취임식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2015. 3. 21) 제3부 행사에서 진행된 제43대 김재왕 신임회장과 제16대 대의원회 김광만 의장의 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제43대 김재왕 회장은 1957년생으로 1983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90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안동시 중앙로 소재 김재왕내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김재왕 회장은 안동시의사회 이사, 기획이사, 회장, 감사, 윤리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중앙이사, 의료일원화사업전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으로 의사회 회무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을 거쳐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4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제16대 대의원회 김광만 의장은 1958년생으로 1983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96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포항시 남구 지곡로 소재 지곡그린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김광만 의장은 포항시의사회 정책이사·의무이사·부회장·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공보이사·기획이사·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등 의사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으며, 제15대 대의원회 의장에 이어 금번 제16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3월 21일부터 3년간이다.



01 김광만 신임 대의원회 의장의 취임사



02 김재왕 신임 회장의 취임사



03 정능수 전임 회장에게 공로패 전달

김재왕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까지 의논하는 장을 활성화하겠으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활동으로 지자체와 함께 주민건강교육과 학교보건교육에 스스로 참여하고 1인 1사회단체 가입과 같은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속으로 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하였으며, “사회의 중요한 건강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주장하기 위해 소위 ‘국민건강보호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국민들의 불안과 잘못된 보도, 쇼닥터와 같은 부작용을 줄일 뿐 아니라 전문가이면서도 opinion leader로서의 역할로 전문가로서의 위치와 신뢰를 되찾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기존 해외의료봉사활동을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고 현지 의사의 초청 연수, 현지 의료센터의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의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경상북도의 새마을정신과 우수한 한국의 의료를 해외에 알리는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김광만 신임의장은 “지난 1월 25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대의원 직선제 선출이 가결돼 오늘 총회에서 회칙, 세칙,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대의원 직선제 선출을 통해 앞으로 의사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구조로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지난 3월 20일 제39대 대한의사회장으로 추무진 현 회장이 선출됐으며, 국민 건강권 수호는 물론 의사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경북의사회가 적극 도와줬으면 한다.”고 하였다.



제43대 집행부 임원



김재왕 회장
(안동, 김재왕내과의원)



장유석 부회장
(경산, 장유석외과의원)



류성훈 부회장
(구미, 구미항외과의원)



김광만 의장
(포항, 지국그린의원)



김광인 부의장
(안동, 안동계통의원)



김종영 부의장
(경산, 김연함소아청소년과의원)



도 황 부회장
(경주, 경주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동석 부회장
(경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노진우 부회장
(영주, 참사랑외과의원)



정선희 부회장
(상주, 정소아청소년과의원)



이우석 부회장
(포항, 영동안과의원)



문상웅 총무이사
(안동, 제일외과의원)



채한수 기획이사
(경산, 채한수이비인후과의원)



김상기 학술이사
(구미, 속편한내과의원)



문성수 학술이사
(경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이충원 재무이사
(안동, 진보힐통증의학과의원)



장필식 법제이사
(예천, 경북의원)



양승부 의무이사
(구미,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배창표 보험이사
(김천, 현대정형외과의원)



김우석 보험이사
(포항, 오거리사랑요양병원)



권준영 공보이사
(안동, 권내과의원)



서의태 공보이사
(안동, 안동계일안과의원)



이영삼 정보이사
(경주, 제일의원)



백두현 정책이사
(고령, 고령백의원)



방종경 정책이사
(성주, 덕산의원)



황정한 정책이사
(상주, 상주성모병원)



성상욱 정책이사
(영덕, 강구성모의원)



김인정 정책이사
(영천, 한국계통의원)



이상호 정책이사
(의성, 대신의원)



김하균 정책이사
(칠곡, 석적중앙의원)

감사단



박봉기 감사
(문경, 박내과의원)



하달봉 감사
(영천, 허달봉피부비뇨기과의원)



이재훈 감사
(의성, 경북외과의원)

사무처 직원



박재영 사무처장
(경상북도의사회)



권순길 부장
(경상북도의사회)



김태하 차장
(경상북도의사회)



제67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서 본회 모범지부 표창

한 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총력 저지' 결의문 채택
신임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정능수 감사 선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4월 26일(일) 오전 9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의협 사상 처음으로 회원 직선제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본회가 모범지부 표창을 수상(2004, 2012, 2013, 2015년 4회 수상) 하였으며, 정능수 직전 회장이 의협감사에 선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후임으로 임수흠 신임 의장이 선출되었다. 임수흠 의장은 5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선거에서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제28대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해 진정한 대의원회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제39대 회장으로 다시 선출돼 회장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추무진 의협 회장의 공식 취임식도 열렸으며, 추무진 회장은 의협이 변화를 주도하고,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을 다짐했다.



01 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전경
02 의사윤리강령 선서중인 본회 중앙대의원

이어 부의장선거에는 4명 선출에 7명이 입후보하여 치열한 경선이 치러진 결과 권건영(대한의학회 부회장), 신민호(전 서울시의사회 의장), 이철호(전 대전시의사회 의장), 김영완(현 충남의사회 의장) 후보가 선출되었으며, 의협 부회장 선출은 선출인원과 입후보한 후보 수가 같아, 입후보한 김숙희(서울시의사회장), 김봉옥(충남대학병원장), 이원철(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조원일(충북의사회장), 김주형(전북의사회장), 변태섭(울산시의사회장) 등 6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으며, 강청희 현 상근부회장은 추무진 의협회장 추천으로 유입되었다. 또한 감사에는 11명의 후보가 경합한 결과 다득표 순으로 유혜영(전 의협 재무이사)·이원우(전 부산시의사회 의장)·정능수(전 경북의사회장)·김세현(현 의협 감사) 등 4명이 당선되었다.

정기대의원총회서는 금년도 의협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22억여 원 감액된 97억6,279만여 원이 통과되었고 △발간사업 예산 33억1,057여만 원 △전문기자격시험 예산 9억3,640만 원 △공익사업 예산 20억1,284만 원 △의료정책연구소 예산 30억430만 원 △의료광고심의사업 예산 27억8,179만 원 △수익사업 예산 22억9,622만 원 △종합학술대회 예산 22억6,547만 원 △투쟁성금 예산 12억2,743만 원 등 세부 예산안이 모두 의결되었다. 이날 대의원들은 심각한 의협 재정악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미신고 회원의 신고 독려를 통한 회비 납부율 증대,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강제적 회비징수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노인정액제 인상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심평원의 무차별 심사·삭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추진토록 위임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 구조 조정 및 의료비 낭비 행태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할 것도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밖에 3차 의료기관의 외래 확대 제한, 달빛어린이병원 철폐, 의료인력 증장기 수급대책, 리베이트쌍벌제로 인한 피해 회원 구제 방안,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비 현실화 등 회원들의 민생 관련 현안들도 집행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회원투표제는 또 다시 부결됐다. 의협 집행부는 회원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 정관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했으나 본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각종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와 정책들로 인해 의료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히고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마쳤다.



03



04



05

03 모범분회 수상 후 기념촬영
 04 의협감사에 선출된 정능수 감사(좌에서 두번째)
 05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제37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성황리 개최

지난 4월 1일 제43대 집행부가 새로이 출발한 가운데 처음으로 치러지는 제37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가 많은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하나 되는 화합의 대축제로 지난 5월 16일(토)부터 1박 2일간 경주코오롱호텔에서 열렸다. 의사의 날 행사는 매년 ‘춘계종합학술대회’와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체육대회)’, ‘테니스대회’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어 새로운 의학기술을 전달하고 회원과 가족들 상호간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15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제37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을 맞아 시작된 ‘2015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는 어려운 진료 환경에서 급변하는 의료정책 뿐만 아니라 발전하는 새로운 의학기술과 지식습득으로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제로 준비하여 지난 5월 16일(토)부터 17일(일)까지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회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첫날 학술대회 연제로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 치료 및 관리(동국의대 심장내과 나득영 교수) △외래에서 항우울제 약제 사용과 주의사항(계명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김정범 교수) △남성 성기능장애 치료제의 최신지견(영남의대 비뇨기과 문기학 교수) △2015년 개정세법 및 절세·재테크 전략(신한금융정범균 본부장) △어깨통증의 감별진단과 대처법(대구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박기영 교수) △2015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경상북도 식품의약과 정준배 과장) △Medical Professionalism(영남의대 류마티스내과 이충기 교수)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도 황 좌장 나득영 교수 김정범 교수 문기학 교수



노진우 좌장 박기영 교수 정준배 과장 이충기 교수



김종영 좌장 고혜진 교수 박창근 과장



류성훈 좌장 김연재 과장 최대해 교수

둘째날은 △전립선 질환(시청각 교육) △새로운 비만치료 가이드라인(경북의대 가정의학과 고혜진 교수) △상피하 종양의 진단 및 치료(대구파티마병원 소화기내과 박창근 과장) △COPD 최신치료 및 흡입요법(대구파티마병원 호흡기내과 김연재 과장)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조치법(동국의대 응급의학과 최대해 교수) △당뇨병(시청각 교육) 등의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참석 한 회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으로 토요일 5점, 일요일 5점이 주어졌다.





제37회 경상북

▲ 의사의날 행사 개회식(김재왕 회장, 추무진 의협회장, 주낙영 경북행정부지사)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및 개회식

첫날 학술대회가 끝나고 곧바로 진행된 친선의 밤 행사는 그간 익숙했던 형식인 회원 및 가족들의 장기자랑이 아닌 경북도립교향악단 금관5중주단을 초청하여 우리 귀에 익숙한 Nella Fantasia(E. Moriccone) 등 7곡과 오카리나로 연주된 인연(왕의남자 OST) 등의 곡으로 꾸민 ‘해설이 있는 음악회’와 매직쇼로 구성된 문화공연으로 진행되어 참석한 회원과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친선의 밤 행사에 앞서 개최된 의사의 날 개회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경상북도 주낙영 행정부지사, 대구광역시의사회 박성민 회장,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 심평원대구지원 이경자 지원장, 본회 신은식·최종두·정만진·이석균·정능수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왕 회장은 “의사 회원들이 진료실에서 더 깊이 프로페셔널리즘을 고민하고, 의료윤리를 잘 지키면서 환자진료를 할 수 있도록 Medical Professionalism의 강의도 준비했고 또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겠다”고 하였으며,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과 소통을 강조한 가운데 “회원들이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반사회 모임을 정례화시킬 계획이고, 여기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사회는 물론 의협과 함께 나누고 더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이고 소통과 화합이 잘 되면 앞으로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의사회의 일에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추무진 의협회장은 “경북의사회는 지역적 특성상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지만, 전임 회장 및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있는 것 같다”며 의사의 날 행사를 축하했다. 또한 “의료비용은 앞으로 급증할 것이며, 미래세대에게 의료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의료계 모두 노력해야 하는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01 경북도립교향악단 금관5중주단의 연주

02 매직쇼 공연

03 공연을 관람중인 회원과 가족들

경북의학제(체육대회)는 ‘북부지구’ 우승

경상북도 4개 권역(동·서·남·북)대항 체육대회인 경북의학제는 지난 5월 17일(일) 오후1시 부터 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경북의학제는 3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각 권역별 대표 선수로 참석한 가운데 김재왕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구미 신주용 회원의 선수선서를 시작으로 의학제 경기로 탁구, 바둑, 족구, 윗놀이(회원·가족팀)와 명랑운동회(추억의 박터트리기, 지네발릴레이, 지구를 굴러라), 화합한마당인 대동놀이를 꾸며져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변의경기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삼행시 및 사행시 등이 다채롭게 진행되었으며, 총점 300점으로 북부지구가 종합우

승을, 남부지구가 준우승을, 동부지구가 3위를, 서부지구가 4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회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삼행시 및 사행시는 ‘종달새’, ‘단합소통’을 시제로 선정하였으며, 60여편의 출품작 중에서 민연합이비인후과의원(경주, 민정기)의 김은단 가족이 ‘종달새’를 주제로 작성한 삼행시가 장원의 영광을 안았으며, △어린이 그림그리기는 ‘가족사랑’과 ‘운동회’를 주제로 30여편이 출품되어 정지원 어린이(안동, 제일안과의원 정재엽 회원 자녀)가 대상을 차지하였다.

이밖에 아이패드, 고급골프백, 여행용캐리어가방, 자전거, 가전제품 등의 많은 경품을 준비하여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서 행운권 대상은 구미 중앙내과의원의 김학근 회원에게 돌아갔다.

회원 테니스대회

회원테니스대회는 5월 16일(토) 오후 5시, 경주알천테니스장에서 본회 장유석 부회장과 많은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서수환·임영택 선수조가 우승을, 서상철·최진교 선수조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테니스대회의 활성화와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한 가운데 신임회장에는 최진교 회원(포항, 최진교이비인후과의원), 총무에는 임영택 회원(울진, 삼성의원)을 선출하고 2015년 가을에 있을 전국 의사 테니스대회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테니스 동호회의 발전에 힘쏟기로 하였다.

01 서수환·임영택 선수조 우승 02 서상철·최진교 선수조 준우승 03 참가한 선수들과 다함께 기념촬영



+ 회무(포토)소식



▼ 삼행시 및 사행시 장원에
민연합이비인후과의원(경주, 민정기)의 김은단 가족

▼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상에
정지원 어린이(안동, 제일안과의원 정재엽 회원 자녀)



삼행시 및 사행시 입선작

제37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삼행시 및 사행시에
「종달새·단합소통」의 시제에 총 60여 작품이 출품되어
입선된 작품이다.



장원 종달새(김은단, 경주 민연합이비인후과의원 민정기 회원 가족)
종일 환자들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
달음박질로 뛰어가 맞이하는
새색시 같은 내 마음

차상 종달새(변영우, 포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종알종알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마누라
달이가고 해가가도 한결 같은 가족사랑
새롭게 다시 태어나도 꼭 당신과 함께 하고 싶소. 사랑하오

차하 단합소통(이봉구, 경주 이피부과의원)
단단한 반석위에 가부좌 틀고 앉아
합장한 모습으로 지그시 눈을 감고
소원을 빌어본다. 네 소원이 무엇인고
통하는 동지에 하나된 경북의사회

단합소통(권성경, 안동 안동제통의원)
단단한 바위도 뚫는
합심된 의지로
소통하며 귀 기울이는
통일된 경북의사회!!

단합소통(윤성욱, 안동삼성연합안과의원)
단란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심하여 즐거운 축제 한마당을 여니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더 느끼게 되고
통쾌, 상쾌, 유쾌한 웃음꽃 핀다

참방 종달새(신수정, 영주 참사랑외과의원 노진우 회원 가족)
종소리 은은한 토함산 기슭에서
달의 힘찬 정기를 온몸으로 마시고
새로운 Medical Professionalism을 실천해봐요

단합소통(박지애, 포항 우리연합의원 가족)
단결해서 뭉쳐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소통은 기본인 소양입니다
통일 의사회, 당신과 내가 앞장섭시다

단합소통(강혜빈, 구미 강내과의원 강혁주 회원 자녀)
단단한 사탕먹다
합죽이가 되었어요
소리도 못내겠네
통째로는 못먹겠다



종달새(최인영, 안동성소병원 최준혁 회원 자녀)
종일 아빠랑 있으니
달달하고 날아갈 것 같이 재미있었다
새처럼 내 기분이 날아갔다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입선작

[주제 : 가족사랑, 운동회]



대 상 | 정지원
(안동제일안과의원 정재엽 회원 자녀)



금 상 | 신한나
(구미, 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주미 회원 자녀)



은 상 | 엄민서
(영주가톨릭병원 엄동환 회원 자녀)



장려상 | 최인영
(안동성소병원 최준혁 회원 자녀)



장려상 | 강태현
(김천, 우리들재활의학과의원 강산경 회원 자녀)



장려상 | 고다은
(포항성모병원 고무성 회원 자녀)

본회 의협 중앙회대의원 직선제로 선출



본회 회칙 제15조에 의거 지난 3월 26일(목)부터 4월 1일(수) 16:00까지 경상북도의사회 중앙 비례대의원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총 7개 선거구 중 경북서부권 제1선거구(구미시)를 제외한 선거구에서 단일후보가 등록되어 회칙 제15조 및 세칙 제15조, 선거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사회 중앙회대의원 선거 당선자를 공고하는 한편 경북서부권 제1선거구(구미시)는 4월 9일(목)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구미시의사회관에서 기표소투표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정대의원 2명은 회칙에 따라 지난 3월 21일(토) 본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 의장과 회

장으로 선출하는 등 중앙회대의원을 모두 직선제로 선출하고 확정하였다. 특히 경북서부권 제1선거구(구미시)의 기호1번 류성훈 후보(구미항외과의원)와 기호2번 석노성 후보(리세비노기과의원)는 선거기간동안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공약을 알리며 열정적인 선거운동을 펼친 끝에 류성훈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자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석노성 후보는 중앙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경북서부권 제1선거구의 교체대의원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본회 김재왕 회장은 경북서부권 제1선거구 투표소를 방문하여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 김학근 선거관리위원과 전우성 구미시의사회장에게 격려를 보내며, 류성훈·석노성 후보에게는 끝까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에 임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당선증을 전달하였다.

◆ 경상북도의사회 중앙회대의원

■ 비례대의원(7명)

선거구명	지역	대의원(비례·교체)
경북동부권 제1선거구	포항시 북구	• ㉞ 변영우(포항,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북동부권 제2선거구	포항시남구·영덕군·울진군·울릉군	• ㉞ 서창수(영덕, 서창수외과의원)
경북서부권 제1선거구	구미시	• ㉞ 류성훈(구미, 구미항외과의원) • ㉞ 석노성(구미, 리세비노기과의원)
경북서부권 제2선거구	김천시·상주시·문경시·군위군 의성군·예천군·고령군·성주군	• ㉞ 정능수(의성, 동산연합의원)
경북남부권 제1선거구	경주시·영천시	• ㉞ 이봉구(경주, 이피부과의원)
경북남부권 제2선거구	경산시·칠곡군·청도군	• ㉞ 장유석(경산, 장유석외과의원)
경북북부권 선거구	안동시·영주시·청송군·영양군·봉화군	• ㉞ 故김석곤(안동, 인선학문외과의원)

■ 고정대의원(2명)

구분	고정대의원	
대의원회 의장	• ㉞ 김광만(포항, 지곡그린의원)	• ㉞ 김광인(안동, 안동제통의원)
회장	• ㉞ 김재왕(안동, 김재왕내과의원)	• ㉞ 도황(경주, 경주마취통증의학과의원)

제43대 집행부 회무추진 중점목표 전달



제43대 김재왕 회장의 임기시작과 더불어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를 지난 4월 1일(수) 오후 7시 30분, 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고 회원의 단합과 소통 등 6개 항목의 회무추진 목표를 전달하였다.

이날 상임이사회서는 지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 7명(중앙이사 포함)에게 선임장을, 집행부 상임이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였으며, 신임 집행부 임원 상호간 인사를 나눴고, 향후 3년간 회무에 적극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박재영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회 연혁과 주요 현황, 상임이사별 소관업무 및 주요 행사 일정 등의 보고가 있었다.

김재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원을 맡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취임사에서 밝힌 6개항의 회무추진 중점목표를 바탕으로 단합하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효율적인 회무진행을 위해 임원들께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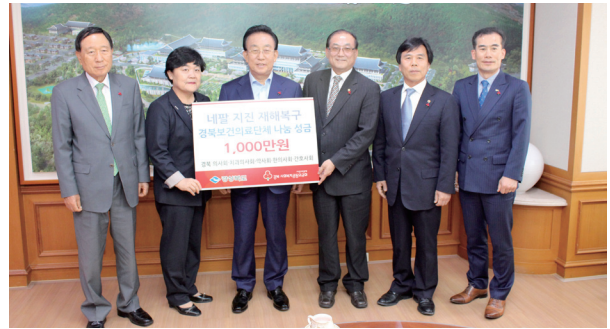
이어 주요회무보고와 2015년도 본회 연중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제37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의사회보 편집위원회 구성, 회원명부 발간 준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재왕 회장, 취임인사차 유관기관 방문



본회 김재왕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1일(수) 회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취임인사차 경상북도를 비롯한 경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언론사 등을 방문하여 인사하였다. 유관기관 방문에서 김재왕 회장은 최근 의료현안을 전하고 향후 유관단체간 상호 원활한 업무 협조를 구하였다.

네팔 지진피해 성금 1천만원 기탁



본회를 비롯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5개 보건단체는 지난 5월 4일 경상북도에 네팔 지진 피해자 긴급구호와 재해복구를 위한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본회 김재왕 회장을 비롯한 5개 보건단체장은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현수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금을 전달했다.

본회 김재왕 회장은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지진 피해자 구호와 재해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김관용 도지사는 “네팔 피해복구 성금 기부에 동참한 지역 의료인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북도 차원에서도 의료지원과 함께 재해복구, 구호물자 지원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자문위원회 위촉



경상북도 소방행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소방행정자문위원회에 김재왕 회장이 위촉되었다.

소방행정자문위원 위촉식은 지난 5월 4일(월) 16:30, 경상북도지사 접견실에 김관용 지사와 소방본부장, 소방행정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에 이어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소방행정자문위원은 도지사의 도정운영과 소방정책개발 등에 각종 자문 역할로 소방행정자문위원회 27명과 지역별 24개 자문단 5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제39대 의협회장 추무진 현 회장 당선

대한의사협회 제39대 회장에 추무진 현 회장이 당선됐다. 추무진 회장은 제39대 의협회장 선거 개표 결과 총 3,285표를 얻어 득표율 24.1%로 당선됐다. 2위 임수흠 후보는 23.6%(3,219표), 3위 조인성 후보는 23.0%(3,139표), 4위 이용민 후보는 16.2%(2,211표), 5위 송후빈 후보는 13.1%(1,792표)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추 회장은 우편투표에서는 2,012표를 얻어 2,148표를 얻은 임수흠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뒤졌으나 온라인투표에서 1,273표를 얻어 1,071표의 임수흠 후보에 앞서 전체 득표수에서 우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4월 26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9대 회장에 공식 취임하고 3년 회무를 시작하였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1960년생으로 △환일고등학교 졸업(1979년) △서울의대 졸업(1986년) △서울대 의학과 석사(1992년) △서울대 의학과 박사(1995년) 과정을 거쳤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충북의대 부교수,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순천향의대 부교수를 지냈다. 이후 경기도 용인시에서 메디서울이비인후과의원을 개원했으며 경기도 용인시의사회 회장,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제 37대 의협 집행부에서 자문위원·정책이사로 활동하다 2014년 6월 18일 제38대 의협회장 회장에 당선되었다.

■ 제39대 의협회장 선거 결과

구 분	총선거인 수	총 투표수	기호1번 임수흠	기호2번 추무진	기호3번 조인성	기호4번 이용민	기호5번 송후빈	무 호
온라인 투표	7,597명	5,931명 (78.1%)	1,071표	1,273표	1,252표	1,432표	903표	0
우 편 투 표	36,817명	7,849명 (21.3%)	2,148표	2,012표	1,887표	779표	889표	134표
합 계	44,414명	13,780명 (31.03%)	3,219표 (23.59%)	3,285표 (24.07%)	3,139표 (23.0%)	2,211표 (16.2%)	1,792표 (13.1%)	134표

(기사 및 사진 제공: 의협신문)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준비위원회 개최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전개를 위한 보건단체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해외의료봉사는 7월 21일(화)부터 26일(일)까지 간달지역에서 펼치기로 하고 세부 진행일정을 점검하여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의료봉사단원은 총 78명으로 구성하고 세부진료계획으로 의사회는 기본진료와 위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외래수술, TPI 시술과 행정적 지원을, 치과의사회는 기본진료와 구강검진, 발치, 충치치료를, 한의사회는 한방 기본진료와 침, 뜸 등을, 약사회는 처방에 따른 의약품 조제, 기념품 배부를, 간호사회는 환자접수, V/S 및 당뇨 체크, 진료과별 진료 보조를 하기로 하였다.

현지 진료시 필요한 의약품은 보건단체별로 준비키로 하고 제약회사에 필요한 의약품을 요청하여 확보키로 하였으며, 기타 현지 진료장소에 필요한 통역인력과 입국비자 등도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캄보디아와의 공동 협력·협약 체결 부문은 의료서비스와 학술 및 교육 교류 증진, 의학교육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 후 확정키로 하였다.

해외의료봉사 전체 의료진 회의는 오는 6월 11일(목)과 7월 9일(목) 두차례에 걸쳐 개최키로 하였다.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식’ 안동서 개최



제43회 보건의 날 및 제67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국민의 건강증진 의식을 고취하고 보건의료사업 추진 우수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효과 제고를 통한 건강도민, 행복경북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는 4월 7일(화) 오전 10시부터 안동시 민회관에서 제43회 보건의 날 및 제67회 세계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보건의 날 기념식은 건강한 식습관을 주제로 '식사는 천천히, 발걸음은 빠르게!'라는 슬로건으로 경상북도 주낙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본회 김재왕 회장과 보건단체장, 지역주민, 공무원, 의료기관 및 의약단체 관계자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유공자표창, 기념식, 보건의 날 노래 합창, 홍보부스 운영, 작품 전시 등의 행사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본회 김재왕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와 양질의 진료제공으로 세계 최정상 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게 되었으며, 평균수명은 80세가 이미 넘었으며, 금번 보건의 날 주제가 '식사는 천천히, 발걸음은 빠르게'로 정해진 것은 시의적절하고 우리의 관심을 한번 더 환기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지역 보건소와 의사회, 보건단체가 함께 건강관련 강좌를 열어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만성질환을 퇴치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캄보디아 구개구순열 아기 2차 수술 지원



지난해 10월 15일(수),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 캄보디아 남자 아이의 구개구순열 1차 수술을 성공리에 마친 데 이어 금번 2차 수술을 위해 3월 26일(목) 입국하여 3월 27일(금) 정규용 성형외과 교수 집도하에 수술을 성공

리에 마쳤다. 이에 본회에서는 캄보디아 아기의 쾌유를 위해 김재왕 회장과 정능수 전임 회장이 동국대경주병원을 방문하여 격려 위로하였다.

동국대학교 의전원 · 의과대학에 장학금 전달



지난 3월 24일(화) 오후 6시 30분, 동국대학교 의전원 · 의과대학 학생회 출범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임 정능수 회장과 심재철 부회장을 비롯한 도황 경주시 의사회장, 남경수 의전원장과 이기석 의전원 · 의과대학 학생대표와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이 자리에서 전임 정능수 회장은 경상북도의사회의 뜻을 모아 지역사회에 훌륭한 의료인을 양성하고, 동국대학교 의전원 ·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신·구 집행부 회무인수인계 개최



지난 3월 31일(화) 오후 7시, 제42대 정능수 회장과 제43대 김재왕 신임회장간 의사회 회무와 회계 일체에 대한 인수인계가 있었다.

회무인수인계에서 김재왕 회장은 전임 집행부의 그 동안 노고를 치하하고 전통적인 장점을 계승시켜 나가겠다고, 회원의 단합과 소통, 의료정책 제시 및 논의의 장 마련, 지역사회 및 주민과 함께하는 의료,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 제시, 해외의료봉사활동 정착으로 의사회 위상 제고, 회원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등의 중점목표를 제시하며 제43대 집행부의 회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날 회무인수인계에는 제42대 정능수 회장과 이재흠 재무이사가, 제43대 김재왕 회장과 문상웅 총무이사, 이충원 재무이사가 참석하였다.

본회 고문단 간담회 및 축하연 개최



본회 회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문역할을 할 고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장 수여 등 고문단 간담회를 지난 5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사랑채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26일(일) 열린 제67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끝으로 이임한 의협 대의원회 제28대 변영우 의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새로이 선출된 정능수 감사를 축하하는 자리를 겸하여 개최되었다.

본회 김재왕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북의사회가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회무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그간 고문님들께서 일구어 놓은 역할이 상당히 크고, 저 또한 그 뜻을 이어받아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고 하였으며, 고문님들께는 “의사회 발전을 위한 의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 하였다.

이어 변영우 전 의협의원장은 “그간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많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의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돕겠다.” 고 하였다. 또한 정능수 의협 감사는 “경북의사회는 전통적으로 훌륭한 감사님이 많았으며, 그 전통을 이어받아 의협 발전과 회원권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의협회무의 지적보다는 상생과 발전을 위하여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할 수 있는 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고 하였다.

문상웅 총무이사는 그간 주요회무보고에서 제43대 집행부 회무추진 중점목표인 △회원의 단합과 소통△의료정책 제시 및 논의의 장 마련 △지역사회 및 주민과 함께하는 의료 △의사의 Professionalism 구축 △해외의료봉사활동 정착으로 의사회 위상

제고 △회원 민원에 적극 대처를 추진하는데 고문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함께 제37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에도 모두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였다.

2015년 제14회 대구·경북 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일 정 : 2015년 7월 5일(일) 08:00~15:00
- 장 소 : 호텔 인터볼고 대구(만촌동) 컨벤션홀
- 연수평점 : 의협4점/내과학회 평생교육 평점4점/대한위장내시경학회 평점1점

08:00-08:50		등록 및 부스참관
08:50-09:00		인사말(개회사/축사) 대구경북개원내과의사회장 백효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이명희
09:00-10:30 Session1		
강의	09:00-09:30	잘 낫지 않는 기침 무엇이 문제인가? 최혜숙 교수 (동국대 경주병원 호흡기내과)
	09:30-10:00	난치성 콧물 코막힘의 해결법 강혜련 교수 (서울의대 알레르기내과)
	10:00-10:30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대장질환 한동수 교수 (한양의대 구리병원 소화기내과)
10:30-11:00 coffee break / 부스참관		
11:00-12:00 Session2		
강의	11:00-11:30	혈압약 부작용 대처 노하우 나덕영 교수 (동국대 경주병원 순환기내과)
	11:30-12:00	비만한 당뇨병자의 새로운 치료법 이창범 교수 (한양의대 구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12:00-13:00 Luncheon		
13:00-13:30 작은 음악회		
13:30-15:00 Session3		
강의	13:30-14:00	질병의 단서가 되는 노인의 혈액이상 김민경 교수 (영남대 혈액종양내과)
	14:00-14:30	류마티스 검사 쉽게 이해하기 주지현 교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14:30-15:00	흥미로운 상부 위장관 내시경 소견 이동호 교수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15:00 폐회사		

2015년 제14회 대구·경북 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 등록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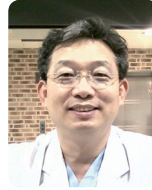
- 등록비
 - 정회원 : 사전등록 무료 / 현장등록 1만원
 - 타과·비회원 : 사전등록 3만원 / 현장등록 5만원
 - 내과봉직의 : 사전등록 2만원 / 현장등록 4만원
 - 전공의 : 사전등록 무료 / 현장등록 1만원 (정회원은 2015년연회비를 납부하고 사전등록을 하셔야만 등록비가 없습니다)
- 사전등록마감일 : 7월 1일(수) (등록마감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등록신청문의(준비사무국) 전화번호 : 053-766-1388
팩스 : 070-7614-3348 / E-mail : one@gbc.co.kr (준비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사전등록신청서를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경홍 회원, 한국외사수필가협회 회장 추대



전경홍 회원(문경, 전경홍가정의학과의원)은 한국 외사수필가협회 제4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한국 외사수필가협회는 오는 7월 전국의학도수필 공모전을 시작으로 9월 시상식 및 미학 심포지움을 가지고 11월에는 한국외사수필 동인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두표 회원, 안동상공회의소 감사장 수상



김두표(안동병원 산부인과 과장) 회원은 지난해 12월 15일(월) 안동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하는 '안동상 의지에 다년간 정기적인 건강칼럼에 기고하여 기업 경영에 유익한 정보 제공을 통한 지역 상공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안동상의' 제 100호 발간에 즈음하여 감사장을 수상하였다.

신재학 회원, 경상북도새마을회 제15대 회장 취임



신재학 회원은(구미 강동병원장)이 제15대 경북도새마을회장에 취임했다. 성주 출신으로 부산대 의과대학 신경외과 전문의와 의학박사를 취득하고, 구미에서 강동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회원별세]



김석곤 회원(안동, 인선학문외과의원)은 2015년 4월 19일(일) 별세했다. 김석곤 회원은 1962년생으로 1980년 계명대를 졸업하고 1995년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안동시의사회장(2012~2014)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료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5년 1월 ~ 4월 까지)

포항시

권혁부 _ 메디컬닥터스맑은세상피부과의원
(791-270)포항시 북구 장량로 160 501호
T. (054)231-5600 / F. 231-8118

김강 _ 메디컬닥터스속시원내과의원
(791-270)포항시 북구 장량로 160 301호
T. (054)232-0510 / F. 232-0514

김남일 _ 메디컬닥터스속시원내과의원
(791-270)포항시 북구 장량로 160 301호
T. (054)232-0510 / F. 232-0514

김준섭 _ 메디컬닥터스당&신내과의원
(791-270)포항시 북구 장량로 160 401호
T. (054)232-0356 / F. 232-0360

서병호 _ 서정형외과의원
(790-825)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26
T. (054)253-7588 / F. 253-7688

손혁 _ 유강연합의원
(790-885)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길17번길 9
T. (054)281-7005 / F. 281-4368

임형우 _ 형통한마취통증의학과의원
(790-822)포항시 남구 상공로 136
T. (054)244-7585 / F. 274-7535

장유석 _ 메디컬닥터스항시원외과의원
(791-270)포항시 북구 장량로 160 701호
T. (054)232-0530 / F. 232-5995

차동연 _ 메디컬닥터스몸편한재활의학과의원
(791-270)포항시 북구 장량로 160 601호
T. (054)232-2390 / F. 232-2393

최선규 _ 포항편한내과의원
(791-817)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126 예원빌딩5층
T. (054)247-6214 / F. 242-6214

포항송도요양병원
(790-830)포항시 남구 송도로 60
T. (054)240-2000 / F. 240-2099

경주시

김건중 _ 온누리내과의원
(780-948)경주시 원화로 305-2
T. (054)742-8277 / F. 748-8277

정석현 _ 정석현마취통증의학과의원
(780-943)경주시 봉황로51번길 27
T. (054)772-0009 / F. 772-0609

김천시

안재범 _ 늘편한의원
(740-100)김천시 자산로 136
T. (054)439-7585 / F. 439-7586

안동시

남광섭 _ 백합연합의원
(760-310)안동시 경북대로 418 201-1호
T. (054)855-2301 / F. 855-2303

이재형 _ 안동밝은안과의원
(760-170)안동시 경동로 609 3층
T. (054)853-6500 / F. 853-9400

새안동요양병원
(760-170)안동시 경동로 617
T. (054)857-9500 / F. 857-9504

구미시

김상억 _ 구미연합속내과의원
(730-908)구미시 송동로 79 2층
T. (054)451-1199 / F. 458-2119

박재홍 _ 기찬마취통증의학과의원
(730-933)구미시 인동중앙로 15 이트리뷰타워3층
T. (054)472-9775 / F. 472-9776

배준석 _ 명연합신경과의원
(730-920)구미시 구미중앙로 59
T. (054)458-7722 / F. 070-7500-3828

안규열 _ 기찬마취통증의학과의원
(730-933)구미시 인동중앙로 15 이트리뷰타워3층
T. (054)472-9775 / F. 472-9776

최승욱 _ 구미연합속내과의원
(730-908)구미시 송동로 79 2층
T. (054)451-1199 / F. 458-2119

문경시

이준희 _ 이준희내과의원
(745-883)문경시 당교로 261
T. (054)552-3434 / F. 552-3434

경산시

손현호 _ 손현호제통의원
(712-904)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10
이슈타워빌딩 202호
T. (053)242-8575

오은경 _ 우리집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712-190)경산시 백자로 78 JEC메디컬타워 202호
T. (053)801-7582 / F. 801-7583

이상원 _ 하양맑은신경과의원
(712-904)경산시 하양읍 대학로 1536
T. (053)295-7575 / F. 295-7580

조외성 _ 마디튼튼연합의원
(712-080)경산시 경산로 47
T. (053)811-1196 / F. 811-1197

하승엽 _ 한결비노기과의원
(712-904)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10 이슈빌딩2층
T. (053)854-8864 / F. 854-8865

고령시

이정섭 _ 다산종합의원
(717-872)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로 9
T. (054)955-7556 / F. 955-7556

+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제19회 포항시 의사의 날 행사 성황리 개최



포항시의사회(회장 이우석)는 지난 4월 19일(일) 오전 10시 30분,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제19회 포항시 의사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의사의 날 행사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김재왕 회장을 비롯한 변영우 의협위원장, 김광만 분회위원장, 신은식·이원기 의협고문 등 많은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윗놀이와 바둑 등 명랑운동회와 지구를 굴러라, 낙하산 릴레이, 지내발릴레이 등 화합한마당 행사로 열띤 경기를 펼친 결과 포항시의사회 B팀(포항성모병원·1·2·3·4·5·20반)이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참석한 회원과 가족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경주시의사회

회원 단합 위한 춘계야유회 개최

경주시의사회(회장 도환)는 지난 4월 25일(토) 춘계야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야유회는 암곡 무장산 등반으로 회원상호간 단합과 친목을 다졌다. 또한 뒷풀이 행사와 더불어 경품추첨으로 알찬 시간을 보냈다.

경산시의사회

스크린골프대회 및 야간산행



경산시의사회(회장 장재혁)는 지난 4월 9일(목) 오후 7시 30분, 경산소재 장산·포세븐 스크린골프연습장 2곳에서 스크린 골프대회를 열었고, 이와 동시에 옥수골 입구에서 술발정을 회귀하는 야간산행을 함께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였다.

이날 회원친목행사는 이석균·장기호 고문을 비롯한 6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분회 김재왕 회장은 시상식에 참석하여 경산시의사회 회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덕군의사회

심평원대구지원과 간담회 개최



영덕군의사회(회장 성상욱)는 지난 5월 20일(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팀과 함께 심사의 경향과 이의신청, 청구시 행하기 쉬웠던 오류에 관한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안동병원

'싱겁day! 건강 올리고' 영양교실



안동병원(병원장 김효운)은 환자를 대상으로 '싱겁 day! 나트륨 줄이고, 건강 올리고' 영양교실을 지난 3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안동병원 영양실은 개인별 짠맛 미각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 알려줌으로써 싱겁게 먹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식품모형 및 식품교환표 전시, 실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일부 식품의 실제 나트륨 함유량 전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저염 식단과 조리법 예시 등을 통해 나트륨 섭취 감량의 방법을 교육 하였다.

18년째 합동추도제 개최



안동병원이 개원기념주간에 맞춰 병원에서 치료도중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합동추도제를 지난 5월 22일(금) 개최했다. 추도제는 한 해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영면하신 고인의 위패를 모시고 유가족을 초대해 추모하고 위로하는 행사로 안동병원은 1998년부터 18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날 추도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추도사를 시작으로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단체의 추모의식, 경연진 의뢰진 등 임직원과 유가족의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日 오토와병원 '20년 우정' 조인식



안동병원과 일본 오토와병원이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3일 일본 교토에서 2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우호관계 확인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에 강보영 이사장을 비롯해 안동병원 임직원들이 참석, 자매결연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욱 확고한 우호증진으로 상호발전에 기여하자고 약속했다.

한국과 일본의 대형 민간병원인 양 병원은 1995년 2월 자매결연을 맺은 후 매년 연수프로그램에 직원을 파견하는 인력교류는 물론 양국의 문화행사에도 임직원들을 초청해 국가간 문화교류 사절 역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250여 사업장 초청, 간담회 열어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병원장 박래경)은 지난 3월 19일(목) 오후 5시, 구미 BS호텔에서 250여개 사업장의 보건관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사업장 보건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래경 병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대한 직업환경의학회 우극현 학회장의 축사와

고용노동부 김호현 구미지청장의 2015년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회에 이어 직업환경의학과 조성용 교수의 2014년도 구미지역 사업장 보건관리업무 평가와 2015년 업무 소개, 구미보건소 정옥화 건강증진담당자의 사업장 만성질환관리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개원 36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4월 2일(목) 개원 36주년을 맞아 향설교육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성장을 향한 변화를 다짐했다.

기념식에는 김성구 의료원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했으며 병원발전에 기여하고 직원간 친목화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직원에게 모범직원상을 수여했다. 또한 30년 근속인 정영수 간호부장 외 28명에게 20년, 10년 근속에 대한 표창과 상금을 수여했다.

'혈액투석 잘하는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72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보유 여부와 전문인력 비율, 정기검사 시행 여부 등 18개 지표를 점검했다. 특히 장비 보유에서 최고 점수인 100점을 받았고, 인력면에서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비율과 혈액투석 적절도 및 혈관관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점

수 95.3점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 평가에 이은 '2년 연속 1등급'으로서 이로 인해 '혈액투석 잘하는 병원'이라는 타이틀을 받았다.

'제3기 홍보대사' 위촉



지난 5월 12일(화) 구미BS호텔에서 '제3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기존 2기 홍보대사 35명과 신임 대사 한국닛다무아(주) 총무부 조수호씨에게 3기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병원을 대표하여 병원관련 소식과 올바른 건강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병원에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홍보대사 제도를 시행중이다. 부녀회장, 대학교수, 봉사단장 등 36명이 활동하는 가운데 병원이 홍보대사들에게 이메일, 문자, 소식지를 통해 보건·의료정보를 전달하면 홍보대사들은 지역사회에 유익한 의료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경북지회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대한산부인과학회경북지회는 지난 2월 7일(토) 오후 5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관 종합강의실에서 '산부인과 임상에서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또한 이날 차기 경북지회장으로 이건호(구미치병원) 부교수를 선출하였다.

사랑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메르스로 불안이 만연한 가운데 연일 진료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지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인 메르스로 인해 보건당국과 우리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질병관리와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상북도 의사회에서도 도보건 당국과 주도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 회원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여기고 중앙의 협에도 같은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상황은 아시다시피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 타지역에서 이송되어 격리된 환자가 2명 있을 뿐, 발생 환자는 없습니다. 평택 채용박람회를 갔다가 발생 병원에서 신검을 받은 구미지역 모교교생 6명중 3명이 고열이 있어, 기숙사에 격리통제 등이 있었으나 음성이었고 서울 삼성병원 간호사가 고향인 안동에서 자가격리 중 메르스 의심 증세로 안동의료원에 격리되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 경상북도 지역은 발생사례가 없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꺾이지 않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에 노출된 우리 회원들과 직원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메르스를 놓쳐 감염 확산이 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경상북도 의사회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료 전문가로서 이미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으나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꼭 읽어보시고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메르스 관련 리포트 중 서울삼성병원 의사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를 처음 접하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최일선에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받으며 일하는 우리 의사들의 사기와 명예를 꺾는 일이라 생각하여 항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메르스가 종식되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마지막까지 퇴치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6. 8

경상북도 의사회 회장 김재왕 올림

성명서

우리 경상북도의사회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보인 메르스와 관련한 사려 깊지 않은 자세에 대해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한다.

진료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진료와 질병을 퇴치하고자 노력하는 많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꺾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와 같은 자세는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더구나 서울특별시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의료 현장의 특성을 차치하더라도 사실관계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성토한다.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의사를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여 만신창이를 만들고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누가 의사를 믿고 아픈 몸을 맡길 것이며 어떻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전문성이 존중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과 각종 불합리한 도전 속에서도 힘겹게 진료일선을 지키는 의사들에게 국민건강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용기를 만들어 주지는 못할 망정 마지막 남은 사기마저 꺾는 무책임한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을 향한 우리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점점 전문성이 훼손 변질되어 가고 불합리한 주장이 난무하는 현재의 의료환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안의 앞뒤를 명명백백하게 가려 국민과 의사가 함께 지켜 나가야 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진료환경을 지켜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모두가 하루 빨리 메르스를 퇴치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2015. 6. 6



경상북도 의사회

정책 제안서

우리는 금번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MERS) 사태를 통해 여러 가지 혼란을 겪는 상황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편적 복지정책 확충으로 인해 보건의료분야가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는 바, 금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난에 너무나 취약하므로 재발방지와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이원화 시켜 줄 것을 제안하며 우선 보건 복지의 2차관 제도라도 조속히 도입해주길 제안한다.
2.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보호위원회를 국비로 지원하여 활성화시키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의사회가 주도적으로 각 전문학회와 조율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적 견해를 통해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한다.
3. 금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의 재난 시에도 처음부터 의료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전문성과 국가의 행정 추진력을 바탕으로 의사회와 정부(지자체)가 공동대책위원장을 맡는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처 시스템을 제안한다.
4. 지난 네팔 지진 때와 같은 재난 시에 선진 의료수준에 걸맞은 상시 구호팀(선진국수준 목표)을 의협과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들도록 하고, 상시적 국제구호가 준비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5.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재난에 대비하여 평소 대한의사협회와 각지역의사회가 국민들을 위한 건강관련 교육(시민건강교육, 학교보건교육)에 전문지식이 없는 비전문가가 아닌 의사가 상시적으로 참여하여 자문역할과 실질적 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제안한다.
6. 위 5항을 실현하고 시민의 보건과 위생을 위한 보건소의 본래의 목적에 걸맞게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생각하여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7. 우리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눈부신 발전을 했으며 의학 역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료보건 분야에 할 일들이 너무 많다. 정부는 규제기요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비합리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정책들로 국가의 역량과 의사들의 충정에 힘을 빼지 말고 선진 의료 환경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

2015.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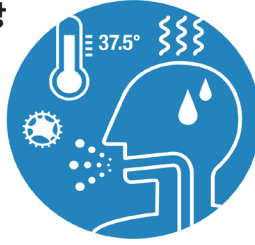
경상북도 의사회

정의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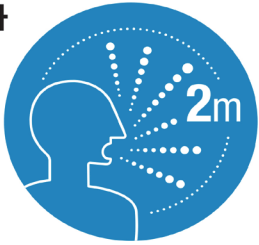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염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파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됩니다.

자가 격리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에 연락하고 가족과 주변사람을 위해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진단



메르스는 가래, 기관지 세척액의 유전자를 검사(RT-PCR)하여 진단합니다.

치료



환자는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며, 중증의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집중 치료를 받습니다.

증상과 발열이 48시간 이상 없고, 유전자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인 경우 퇴원

예방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하며,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여야 합니다.

진료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하였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장비



의료진은 손씻기, 일회용 가운과 장갑, N95 마스크, 눈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메르스 꼭 알아야 할 10가지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

1. 의료기관 대응 개요

1. 증상 및 징후 확인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또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부전 YES ▼	NO	일상적인 환자 분류 및 평가
2. 노출력 확인 증상 시작 전 14일 이내에 - 중동지역에 여행(체류)하였거나 -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와 접촉하였는가 YES ▼	NO	일상적인 환자 분류 및 평가
3. 환자 격리 및 즉시 신고 -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 착용(N95마스크, 가운, 장갑, 눈 보호장비) -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 욕실 또는 두경이 있는 번기가 있는 1인실 또는 밀폐된 공간에 환자 배치 -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		

*의료진은 호흡기 증상(기침)이 있는 환자를 진료전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2. 신고 기준 및 방법

· 신고기준

1.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방문 또는	+	발열 +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 증후군
2.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한 직원, 내원환자, 방문자 또는	+	발열 +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3.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자**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 중동지역 아라비아반도 및 그 인근 국가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서안과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반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밀접접촉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을 착용하지 않고
 - 환자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 같은 방 또는 진료/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운, 보건의료인 등)
 -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 신고처 : 관할 보건소 · 신고시기 : 지체없이

·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로 유선으로 먼저 신고
-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작성 후,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신고

3. 조치사항

의심환자 진료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전까지 - 의료진은 N95 마스크, 장갑, 눈 보호장비(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고 - 의사환자는 수술용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격리병실이 있는 병원 -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 착용하고 진료 *N95마스크, 장갑, 보호복(가운), 눈 보호장비 - 환자는 격리병실에 입원 - 환자 검체 채취	격리병실이 없는 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전까지 - 의료진은 N95 마스크, 장갑, 눈 보호장비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고 - 의사환자는 수술용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	---	---

중동호흡기증후군이란 ?

·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 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

· 감염경로

-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음
- 단,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병낙타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 가능

· 임상적 특성

- 대부분 환자가 중증급성호기도절환(폐렴)이나 일부는 무증상을 나타내거나 경한 급성상기도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 주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 그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 합병증 호흡부전,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 부전 등
- *신부전을 동반하는 급성 신부전 동반 사례가 사스 보다 높음
- 기저질환(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등)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는 MERS-CoV 감염이 높고 예후도 불량

· 잠복기 5일 (최소 2일 ~ 최대 14일) · 치명률 30% ~ 40% · 예방 백신 및 치료제 없음

의료인 감염 예방 수칙

- 환자 진료 전 · 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
- 의사환자 등 진료시 N95 이상의 호흡마스크, 장갑 및 1회용 가운, 고글(또는 안면부 가리개)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도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
-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
-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행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
- 기침, 재채기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 방문

메르스 접촉자 관련 정보 의료기관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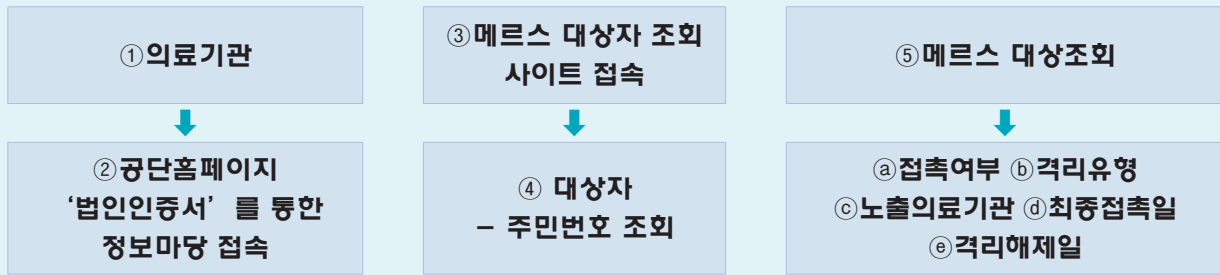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접촉자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내 제공하고 있으니 일선의료현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 '의료기관 정보마당'에 메르스 접촉자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 개통

• 조회방식

- ① 의료기관 내원
- ② ~ ③ 의료기관은 공단홈페이지 정보마당 접속(법인 인증서 로그인)
- ④ 내원환자 주민번호 조회
- ⑤ 대상 여부 · 격리유형 · 노출의료기관명 · 최종접촉일 · 격리해제일 정보 조회 가능 → 결과 표출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심철재 부장(02-3270-9221), 이영현 차장(02-3270-9623)

| 경상북도 메르스 대응 합동회의 개최



경상북도는 6월 5일(금) 오전 10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용 지사가 주재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상북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경찰청을 비롯한 경상북도 보건단체, 시·군 보건소, 3개 의료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국가지정 격리병원) 등에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민·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문적·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메르스 발생과 확산을 막고 도민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본회 김재왕 회장은 지역사회로의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검역과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예방법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또한 이날 발표한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민관 합동의 강력한 대응체계로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호소하고 특히 현재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근거 없는 루머와 잘못된 유언비어로 인해 도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자제를 부탁하고 마스크 착용과 외출 후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사고 분쟁 처리는 든든하게
조합원의 권익 보호는 튼튼하게



의료사고 분쟁



화재, 시설관리 사고



공제조합에
문의하세요!

- ▶ 의료분쟁으로 인한 사건처리(합의 · 중재 · 보상 · 민사소송 대행)
- ▶ 화재, 도난 및 시설물 관리(원내에서 넘어지거나 낙상사고 등) 배상책임까지 **모두 보상해드립니다!**

▶ 가입문의

| 공제조합 본부

▶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관할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59 샘탑빌딩 5층
 ☎ 1899-0059,
 Fax 02-6234-1346, 02-792-1361

| 지부사무소

▶ 부산[부산] T.070-4707-5122 ▶ 대구[대구/경북] T.070-4707-5123
 ▶ 광주[광주/전남·북] T.070-4707-5124 ▶ 대전[대전/세종/충남·북] T.070-4707-5125
 ▶ 전북출장소[전북] T.070-4707-5126 ▶ 경남[경남/울산] T.070-4707-5126

KMAA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KOREAN MEDICAL ASSOCIATION MUTUAL AID

제6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수상자에게 듣는다

본회는 의학에 대한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학술상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회원에 대한 봉사상을 (주)동원약품 후원으로 공모하여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2015. 3. 21)에서 상패와 부상(각 금1냥)을 수여하였다.





이 관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경주)

학술상 수상소감

먼저 우리 경북의사회에는 학술적으로 역량이 높은 여러 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쁨보다는 선·후배, 동료, 회원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학술상을 받은 논문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의 경우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는 직업적 노출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즉 흡연에 의한 노출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최근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금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 관련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사업장 건강증진운동의 대상으로 금연 운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을 주장한 논문입니다.

학교에 있으면 당연히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 본연의 일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러한 활동이 소홀해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마침 경북의사회가 주신 학술상을 다시금 저를 되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상을 주신 경북의사회와 (주)동원약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한 연구가 완성되기까지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도 해주신 임현술 교수님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석균 회장

청강장학회(경산)
청십자내과유외과의원

봉사상 수상소감

먼저 제41대 집행부에서 학술상 및 봉사상을 제정했었는데 그 때 회장을 맡은 본인이 봉사상을 받게 되어 회원님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봉사의 정신을 갖게 된 계기는 선친께서 본인은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항상 자신보다는 남을 돕고 배려하면서 생활하시는 것을 보았고, 1972년 경북대학교 제1회 선행상과 대구로타리클럽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후 앞으로 생활하면서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85년 부친 회갑을 위해 다섯형제가 기금을 모았으나, 부친이 극구 회갑을 마다하고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에 삼원가족장학회로 제1회 장학금을 수여 하였으며, 이후 제가 경산에서 1987년 개원을 하고 장학금 외 청소년 지원, 경로 지원, 봉사단체 지원 등 사업을 확장하면서 청강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장학금 지급과 청소년 봉사단체 결성 및 지원, 학교 교의, 학생 금연 강의 등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외 경로 지원, 소외계층 지원,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오지 지역 무료진료 봉사, 각 봉사단체 고액기부, 각 장학회 고액기부, 로타리클럽을 통한 봉사 등 30년에 걸쳐 학생 350여 명, 50개 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진료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집사람이 직접 저의 손발이 되어 배식봉사, 도시락 배달, 쌀 전달, 적십자를 통한 봉사, 로타리클럽 회원으로 봉사 등 묵묵히 일선에서 모든 잡다한 봉사활동을 해준데 대해 모든 공을 돌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봉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며, 봉사상을 받게 해 준 경상북도 의사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의사회에 바란다



이우석 회장
포항시의사회

포항시의사회는 경북의사회 내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있고 회비납부 및 경북의사회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모범회로서 앞으로도 김재왕 신임 회장님의 회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사회가 과거 의약분업, 원격진료 투쟁 등에서 화합, 소통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는데는 회원들간에 소통과 참여 의식 고취가 부족하였다고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그동안 분열, 무관심한 의사회 회원들간의 화합과 소통에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건강보험 수가, 원격진료 등)를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내 일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지역적으로 반상회 활동 등을 활성화 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참석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도의사회와 같이 고민하여 지역의사회 회원들간에 소통과 화합을 고취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최인환 회장
김천시의사회

새로운 경북의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의료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며 내외로 의료계에 대한 도전이 어느때보다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날로 변하는 환경에 대처해 가야하는 임원진의 책무는 막중하며 중압감을 느낄 것입니다. 각과와 각시군의 입장도 다양하며 그 각각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날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며, 참여의식도 날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숨에 해결하기에는 우리 앞의 현실은 험산준령(險山峻嶺)입니다. 개개인의 눈앞에 보이는 당근을 바라보지 말고 먼 훗날을 바라보며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바라보는 혜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고 참여하며 인내하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경북의사회에 바라는 사항이라면 먼저 새로 개원하는 회원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료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의료의 윤리가 경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새로 개원하는 회원을 잘 지도하고 격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각시군의 의견을 도의사회에서 잘 조율하고 정리하여 중앙에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북의사의 날 행사에서 학술대회에 참여한 모든 회원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연제가 더 많이 채택되어 자리가 넘쳐 흘렀으면 합니다. 음악회나 기타의 이벤트도 짜맞추기식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수준이 있는 그런 기획의도가 엿보이는 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체육행사도 다양한 레파토리보다 회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경북도정의 행사에서 의료계의 의사가 잘 전달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분야를 찾고 직접 동참하는 경북의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의사가 개개인의 이익을 쫓는 집단이 아닌 사회에 봉사하고 책임을 다하며 리더하는 전문가의 집단이라는 명예를 회복하는 경북의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간에 소통과 화합을 고취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리더하는 전문가의 집단이라는 명예를 회복하는 경북의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혁 회장
경산시의사회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사회 회장 장재혁입니다.

앞으로 3년간 경북의사회를 이끌어갈 제43대 집행부 임원여러분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데 대해 경산시 회원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점점 열악해지는 의료 환경과 규제만 있는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회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과 시도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회원들이 무관심과 실망감으로 시군의사회 모임의 참석을 저조, 의협 회비 미납 등 각 직역과 전문 과목, 세대 간 흩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의료정책과 제도 및 국민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로간의 반목과 질시, 무관심은 우리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게 하고 의료계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시군의사회는 의사회의 기초가 되는 조직으로서 회원들의 권익과 소통, 화합을 위하여 먼저 노력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도의사회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의협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해야 합니다. 회원들과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해서는 빠른 정보교환이 필수이므로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 SNS 를 통해 경북의사회의 중요한 회무나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으며 또한 회원들의 의업과 생업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의협 및 시도의사회가 그동안 현실에 좌절하고 무관심하며, 흐트러진 회원들의 마음을 되돌려서 서로 화합하고 뭉치게 한다면 추진동력이 확보되어 의협의 사회적, 정치적 위상이 강해져 정부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의사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국민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것입니다.

의사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권리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의사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는 것은 의료전문가 스스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며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기본입니다.

의료계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치면 의사가 의료 환경의 중심이 되어 정당한 진료권을 지켜나가고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상이 구현될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되도록 경북의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상북도의사회 임원소감 |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장 유 석 부회장
장유석외과의원(경산)

금번 제43대 집행부의 부회장으로 회원여러분들께 봉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능하고 참신한 분들이 우리 경북회원중에는 많은데 제가 부회장직을 맡음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김재왕 회장님, 그리고 임원들과 함께 회원님들께서 경북의사회의 한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에도 해외의료봉사단은 7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로 갑니다. 많은 격려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진료하시다가 궁급하시거나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회원님들은 010-8853-7013 장유석으로 항상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사회 제43대 집행부에서 부회장을 맡게 된 류성훈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분에 넘치는 임무를 맡겨주신 김재왕 회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의료환경의 현실에서 고군분투 하시며 진료에 임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신장과 의권쟁취를 최고의 목표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장님과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회장님을 잘 보필하고 각 상임이사님들과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하여 경상북도의사회 회무를 빈틈없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 성 훈 부회장
구미항외과의원(구미)



도 황 부회장
경주마취통증의학과의원(경주)

이번 도의사회 임원진에서 부회장을 맡은 경주에서 마취통증의학과를 운영하는 개원의입니다. 무엇보다 능력 없는 저에게 자리를 맡기신 회장님의 호의에 감사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을 잘 보좌하고 우리 동료 의사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회장직의 수행을 다짐하며 저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늘 다른 임원들과의 소통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이번 임기 내 도의사회의 발전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 경주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도의사회 부회장직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지역의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도의사회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가 쉬울 듯 합니다. 지역의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을 잘 파악해서 충실히 임원진에 전달하고 그 요구가 잘 시행되고 지원이 되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 번 경북의사회의 소임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41대 학술이사의 업무를 하면서 경북의사회와 인연을 맺고 다양한 업무와 역할 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북 의사회를 통해 많은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견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소임은 춘추계학술대회, 학술상 심사를 위주로 업무가 주어졌으며, 그 외에도 의사회 전반적인 업무에 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집행부의 소임을 맡으신 회장님이하 모든 이사 분들이 의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로 구성되어있어 한결 마음이 가볍고 든든합니다. 끝으로 경북의사회와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 석 부회장
동국대학교경주병원(경주)



노 진 우 부회장
참사랑외과의원(영주)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어느 한 해도 힘들지 않게 지나간 해가 없습니다만 이즈음의 의협은 원격 진료,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 기기 사용 등의 문제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부회장을 맡게 되어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제가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하신 김재왕 회장님의 리더십이 워낙 뛰어나시고, 같이 일을 도와주실 이사진들의 능력과 의욕이 출중하시니 경북 의사회의 앞날은 밝은 것 같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도와 경북 의사회의 발전과 의료계 현안 해결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한 시골에서 자연을 벗삼아 게으름을 즐기며 지내는 저에게 의사회 임원직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관심하게 지내온 지난날에 대한 별이라 생각하고 지금의 어색함이 의미있는 시간들로 변해가도록 노력해야겠죠. 몇 번의 모임에 참가해보니 변방에선 전혀 알지 못했던 회장단의 많은 수고를 보고 듣게 되었는데 그동안 회원으로서 너무 무관심 했던 것이 반성도 되고 회장단에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아무튼 저의 무능력이 회장님이하 의사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금은 부지런해 져야겠죠. 앞으로 많은 일반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 더욱 활기차고 뜻있는 경상북도 의사회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정 선 희 부회장
정소아청소년과의원(상주)



이 우 석 부회장
영동안과의원(포항)

2010년 포항시의사회 의무이사를 처음 맡고 나서 시작된 의사회 활동이 벌써 6년째가 되어가는군요. 첫째 참석한 경북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모 선배님의 의장 퇴임식사에서 ‘의사회 일 시작하지 20여 년이 넘어 이제 은퇴하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허걱, 나도 저 선배님처럼 되는 거 아닌가!’ 심히 걱정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사회 의무이사, 부회장과 경북의사회 의무이사, 부회장, 포항시의사회장으로 자꾸 순서대로 어느 순간 그 선배님의 뒤를 따르고 있네요. 다양한 행사준비를 하고 다른 지역 의사회와 교류도 하고 우리 의사들 내부 문제로 고민도 하고 때로는 앞장서서 때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고 동료의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라고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다독겨려주시는 의사회 선배님들이 계시기에 매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다시 시작한 2015년 경북의사회 부회장 임기 동안 회장님, 부회장님들, 상임이사분들, 사무처 직원들과 즐겁게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팀웍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대구-포항 왔다 갔다 하렵니다. 마침 KTX 개통이 반가운 것이 이것 때문 인가요~~^^



문 상 응 총무이사
제일외과의원(안동)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회원님께 인사드리는 제43대 총무이사를 맡게 된 문상웅입니다. 전임 임원중 한 선배님께서 총무이사는 한 6년은 해야 의협,도이사회 회무를 파악하고 역할에 충실할수있다고 농담조로 하신 말씀이 현실이 되었네요. 능력이 부족하고 미미하지만, 회원님의 권익과 의사로서의 사회에 대한 역할 등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김재왕 회장님의 의지와 뜻을 실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회기에서는 행사 준비 등 앞만 보고 바쁘게 지나온 시절 이었지만, 향후에는 의료 현안과 정책 및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에 특히 관심을 가지며, 백번의 말보다는 행동으로 표현 하는 총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갈수록 의료환경이 열악해지고 힘들어지지만 김재왕 회장님, 부회장님, 이사님,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도의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의사회 신임 기획이사 채한수 입니다.

김재왕 회장님의 부름을 받고 승낙은 했지만, 이 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경산에서 개원한 13년 동안 의료환경은 갈수록 제약과 어려움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지역의사회 회원들의 단합과 소통이 첫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경산시의사회 재무, 기획이사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이사로서의 역할과 책임, 2. 동료 이사님들의 협력과 상호 지원, 3. 업무에 대한 사고의 확대, 4. 비판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위의 사항들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북의사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 한 수 기획이사
채한수이비인후과의원(경산)



김 상 기 학술이사
속편한내과의원(구미)

경상북도의사회. 앞으로 저에게 많은 좋은 인연(因緣)들을 만들어 줄 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그 인연을 살릴 줄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일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가 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서도 인연인 줄 모르고 벗어나려고만 했으니까요. 반면, 10여 년 전 안동에서 만난 작은 인연을 지금까지 기억하시고 늘 걱정해주시며 챙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회장님이시지요. 옷자락 만큼 스친 작은 인연을 살려 지금까지 좋은 인연을 이어오시고 상임이사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주셨으니, 회장님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제 삶에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 보려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 줄 알고 그 인연을 살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사회에서 만날 많은 선·후배 선생님들과의 인연을 진정 소중히 인연인 줄 알고 좋은 인연(因緣)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좋은 인연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 좋아야 좋은 인연이라 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인연이 되도록 파이팅!!! 경상북도의사회 파이팅!!!

의사회 회무에 전혀 경험이 없기에 일을 함에 있어 항상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 많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쌓여 충분한 내공이 쌓일 때 비로소 자신감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격려와 꾸지람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43대 경상북도의사회에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신임 김재왕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훌륭한 선배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직분을 맡겨 주시어 어깨가 무겁지만 한 편으로는 그동안 주로 나 자신을 위해 지내온 것을 돌이켜보고 앞으로는 주변을 더 생각하고 봉사하라는 좋은 기회로 여겨집니다. 여러 선배님들과의 함께할 여정이 유익하고 즐거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의사회 일을 하면서 그 인연으로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을 알게 될 거 같아 개인적으로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학병원에서만 근무해온 저로서는 지역의사회 일이 다소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배우고 또 일하는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의사회 회원의 한 명으로서 의사회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을 위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이 평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지금의 의료 환경에서 의사선생님들을 대표하는 의사회가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그것은 달리 보면 의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회가 보통 의사선생님들과 동떨어진 별개의 단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합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위기는 의사회의 위기이고 의사회의 위기는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집행부의 역할은 회원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그 의견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김재왕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열린 의사회, 의료사회적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의사회,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더불어 좀 더 젊은 생각을 의사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바 소임을 다 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집니다. 감사합니다.



문 성 수 학술이사
동국대학교경주병원(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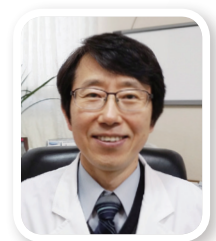
이 충 원 재무이사
진보혈통증의학과의원(안동)

존경하는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

이번에 경상북도의사회 재무이사를 맡은 이충원입니다. 비록 제가 이런일에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여러 이사님들과 함께 김재왕 회장님을 충분히 보필해서 경상북도의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모든 회원님들께서도 보다 더 의사회 일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북의사회 제43대 법제이사를 맡으면서...

오늘은 첫 상임이사회가 있는 날 입니다. 오전부터 머리도 아프고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다행이 오후가 지날수록 아픈게 좋아집니다. 30분쯤 일찍 진료를 마치고 예천에서 대구로 향합니다. 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경북의사회의 임원으로 첫발을 내 디딤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간병하는 일에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참 좋은 직업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가르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로서 지난 28년간 나를 의사로 만들어준 환자를 사랑하고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데 나름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고립되지 않으려 나름 애를 썼습니다. 이제 경북의사회의 법제이사로서 그에 맞는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하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워낙 지식도 짧고 경험도 미천하여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시행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회 모임 등 경북의사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서로 교류하고 잘 소통하여 더불어 잘 지내고 단합하여



장 필 식 법제이사
경북의원(예천)

+ 기획특집

경북의사회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어 의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의료정책이나 행사 등이 행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밝은 미소로 회원을 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북의사회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왕 회장님과 여러 부회장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 승 부 의무이사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구미)

신임 김재왕 회장님의 호출을 받고 경상북도의사회의 의무이사를 맡게된 양승부입니다. 의무행정을 앞으로 어찌 수행해야 하나 하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있지만 늘 배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며 많은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무이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다짐해봅니다. 산류천석(山溜穿石)에서 처럼 작은 물방울들이 결국에는 바위를 뚫듯이 우리 회원들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모아진다면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의료현안들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으며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정책이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개업 16년 동안 선배 임원님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편안히 진료실에서 제 자신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는데 이번 집행부에서 보험이사로 임명되고 보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배님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의료계의 권익을 지키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마주치는 현실적인 애로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으로 회무와 행사에 잘 참석하여 제가 소속된 김천시의사회와도 유기적 관계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배 창 표 보험이사
현대정형외과의원(김천)

정보이사로서의 소임이 끝나고, 다시 보험이사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기존의 경상북도의사회 회무 이외에 새로이 시작된 일이 많았습니다. 경상북도의사회 골프대회와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활동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기억에 남는 일은 우리 의사의 권익을 찾기 위한 의료투쟁에 대한 일일 것입니다. 몇 번이나 올라갔던 서울행, 수십차례에 걸친 회의와 수많은 의견들과 논쟁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의사들을 향한 불합리성과 억눌림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의견이 부딪힌 것들 역시 의사들의 권익을 위한 개개인의 간절한 마음들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전체에 대한 단합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회기 중간에 있었던 의사회 지도층사이에서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의사회에서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더욱 단단하게 할 매개체가 될 것인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방향은 갈등이 아닌 하나된 모습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김재왕 신임 회장님도 이러한 회원들간의 단합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중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회장님의 뜻에 따라 작지만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드리고 싶고, 회원여러분들도 항상 의사회에 많은 관심과 함께 꾸증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우 석 보험이사
오거리사랑요양병원(포항)

막상 공보이사를 수락하고 나니 걱정이 앞섭니다. 도의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데다 시의사회에서도 충무를 맡고 있는 터라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느껴집니다. 공보(公報)란 ‘국가 기관에서 국민에게 각종 활동 사항에 대하여 널리 알리는 일’로 단체의 입이 되는 소관입니다. 말로써 흥하고 망하는 세태 속에서 얼마나 중용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어떤 원칙의 기준을 갖고 얼마나 회장님을 잘 보필할지 걱정입니다. 의료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의료인들은 점차 개인화되면서 단체의 일에는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단체의 장이나 임원은 자칫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욕먹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일단 임무를 맡았으니 맡은 바 책임은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 뿐 아니라 전체회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산적한 의료현안과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겠고 공부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회장님을 도와 경북의사회, 더 나아가 전체 의사회가 진일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 준 영 공보이사
권내과의원(안동)



서 의 태 공보이사
안동제일안과의원(안동)

따르릉 진료실에 걸려온 김재왕 회장님의 식사 한 끼 하시자는 전화를 받고 ‘왜 연락을 하셨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참석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공보이사를 맡아 달라는 회장님 말씀에 어쩔 곁에 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공보이사를 맡으며 이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공보란 한 단체가 하는 여러 가지 일과 이론 업적들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경북의사회는 도민들에게 현재의 여러 의료 현안들을 홍보하는 일에 앞서 회원들 간의 단합과 소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 회원들에게 경북의사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회원들 간의 관심과 단합을 이끌어 내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경북의사회의 대표적인 행사로 계획하고 있는 5월 경북 의사의 날 행사, 7월의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등 여러 행사를 홍보하여 회원들 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단합과 소통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또한 회장님이 추진하시는 지역사회 및 주민과 함께하는 의료를 주위의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경북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시내가 모여 큰 강이 되듯이 작은 일부터 챙기면서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과 경북의사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임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이사 이영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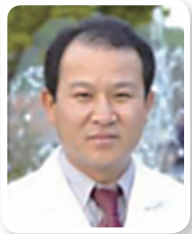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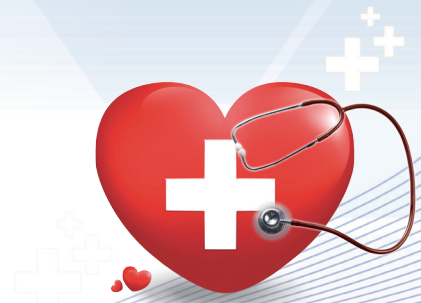
어느 모임에서나 임원을 맡으면, 집행부 중심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회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회원이 주인되는 경상북도 의사회가 되도록 작은 힘 보태겠습니다. 마침 회장님께서도 소통과 회원 중심을 강조하시니 마음 든든합니다.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시작 했습니다만 여러 난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 분들과 잘 상의하여 쓰기 편하고 도움이 되는 홈페이지 제작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용기 내어 도전할 테니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 영 삼 정보이사
제일의원(경주)

고산병 바로알기



김 동 선 과장
(안동병원 비뇨기과)

고산병 발병은 5,000m까지 트레킹하는 사람들에서 중등 정도 또는 그 이상의 고산병 증상이 오는 경우가 약 25%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에서는 고소폐부종이나 뇌부종과 같이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지 최근 국내 한 여행사 대표가 메라피크 등반 중 4,800m 지점에서 심한 고산병이 와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생에 다시 내기는 어려울지도 모르는 시간과 많은 돈을 투자하고 오랫동안 계획하여 실행한 너무나도 귀중한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괴로움, 같이 온 동료 들에게 짐이 된다는 미안함 등등, 고산병은 고산을 트레킹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걱정거리 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산을 등반 또는 트레킹 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산병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로 Thomas E. Dietz, MD의 Altitude illness clinical guide for physicians와 International Society for Mountain Medicine의 Non-physician-Altitude Tutorial, Peter H. Hackett의 Frontiers of hypoxia research: acute mountain sickness, J. Kenneth Baillie의 The lung at high altitude, 김유영과 이상인의 고소증과 고산병의 치료와 예방(J Korean Med Assoc, 2007; 50(11): 1005~1015) 등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본 내용 중에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루클라의 텐징-힐러리 공항(2,850m)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고산등반의 메카인 네팔이 혼돈상태에 빠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빠른 복구와 안정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등반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정상 이 1,700m 이상인 산도 있으나, 등반은 대개 1,000m 이하 높이에서 걷는 형식이 됩니다. 히말라야의 산들은 전문 등반가로서 고산원정등반을 하지 않더라도 5,500m 고도 까지 올라가는 트레킹코스 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숙박도 4~5,000m에서 하게 됩니다. 일본에도 3,000m가 넘는 고산들이 많습니다. 일본산 등반의 경우도 3,000m 정도의 정상에 도달한 후 1~200m 오르내리는 정도의 3,000m 높이의 능선을 산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장 신경쓰이는 일이 고산병입니다.



남체(3,440m)와 콩데

1. 트레킹이나 등반 지역에 따라 고산병이 특히 많이 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중 한 곳이 네팔의 쿨부트레킹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적 특성상 등반 시작점의 고도나 루트 등의 배치와 관계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 트레킹 시 지리(1,900m)에서부터 걸어들 경우 고산병 발생률이 반 정도로 준다고 합니다. 전에 루클라비행장이 없었던 시절에는 지리에서부터 5~7일 걸어야 루클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행장이 만들어진 후 부터는 루클라(2,850m)에 비행기로 도착 후 팍딩(2,600m)이나 조르살레에서 자고 다음날 남체(3,440m)까지 가게 되는데 이 경우 하루에 높이는 숙박 고도가 무려 800m가 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트레킹 초기에 고산병이 올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고압백 펌프를 밟아 압력을 높이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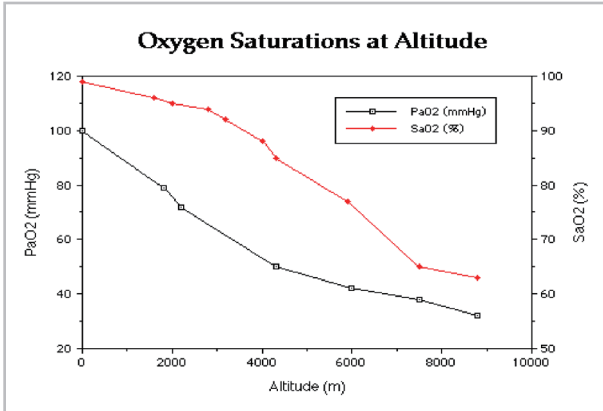
2. Hyperbaric bag(고압백)에는 제조사에 따라 Gamow bag, Certec bag, PAC bag 등 세가지 정도가 있으며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튼튼한 비닐백인데 발로 밟아서 외부공기를 주입하는 펌프를 연결하게 되어있는 구조로 비행기 동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행기는 비행 중 제트엔진의 공기 압축장치 부분의 압축공기를 동체 내로 계속 넣어주고 꼬리 쪽에서는 일정한 압력 유지를 위한 내보내는 밸브가 있어서 비행기는 10,000m가 넘는 높은 고도로 비행하면서도 일정압력과 이에 따른 산소 분압을 유지할 수 있는 cabin pressurization system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압백에도 발끝 쪽에 주위보다 2psi(105mmHg) 정도 높은 압력을 유지하며 공기를 내보내는 밸브가 장착되어 있어서 일정한 내부압력을 유지하게 되고 산소 분압도 높아지게 되며 지속적인 공기 유입과 배출이 이루어져 내부 사람의 호흡에 따라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내부에 축적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용 고도에 따라 유지할 수 있는 내부 압력과 이에 따른 산소 분압이 다른데 이는 쿨부지역의 페리체(4,250m)에서 가모우백 사용 시 내부는 2,100m 정도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레킹 팀원이 5명 이상으로 많을 때는 비용 대비 유사시 큰 도움이 되며 하루 대여료가 USD 15불(2008년 카트만두), 무게는 펌프, 운반가방까지 포함 전부 약 7kg 정도 입니다.

고압백 얘기가 먼저 나온 것은 고산병 발병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기 중 산소는 전체 가스의 21%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도가 높아져 대기압이 떨어져도(아주 극한의 고도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같은 퍼센트로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압이 낮아지면 질소 등 대기 중 다른 가스의 분자 수도 줄듯이 단위 부피당 산소분자 수도 같이 감소하게 되어 우리가 같은 호흡을 해도 폐포에서 혈중으로 잡아들일 수 있는 산소분자 수가 줄게 되어 우

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산소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저산소증이 됩니다.



고도에 따른 산소분압과 정상 동맥혈중 산소포화도

3. 저산소증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흡을 더 자주 더 깊게 해서(과호흡) 폐에서 조금이라도 산소를 많이 얻는 것이며 또 하나는 심장에서 펌프를 더 많이 하여 피를 더 보내서 뇌와 근육이 필요로 하는 산소 공급을 늘리는 일입니다.

이런 과호흡은 산소를 더 많이 얻음과 동시에 몸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를 자동으로 더 많이 내보내게 되며 이는 우리 몸의 산 염기 균형을 깨뜨리게 됩니다. 뇌에서 호흡을 하도록 보내는 우선 신호는 혈중에 쌓이는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는 이산화탄소가 많다는 신호보다는 더 약하게 작용하지만 마지막 안전을 지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산소 부족으로 시작된 과호흡 작용은 이산화탄소가 너무 배출되면서 무너진 산 염기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뇌에서 자동으로 호흡을 억제 시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할 때에는 달리는 동안에는 위에서 말한 두 가지의 호흡을 유도하는 신호가 서로 왔다 갔다 작용하는 이상한 호흡상태를 보입니다. 고소에서 수면 중 나타나는 주기적 호흡(처음에는 정상호흡을 하다가 차츰 느려지다가 한 10초 정도 호흡이 멈추었다가 다시 급한 호흡이 잠시 나타나는 상태가 반복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소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이지 고산병의 증상은 아니며 고소순응이 되

면서 좋아집니다. 그러나 하산하기 전에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수면 중 주기적 호흡이 많은 걱정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숨을 안 쉬다가 뒤이은 과호흡 시에 깨어나서 내가 고소폐부종이 온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옆에서 깨어있던 동료가 보기에 저 친구가 숨이 멎은 건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에는 다이아목스가 도움이 됩니다(자기전 한 알 복용). 잠을 안 자고 계속 심호흡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내보내 생기는 호흡성알칼리증이 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 고산병은 2,500m 이하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숨을 보다 깊고 자주 쉬는 과호흡, 운동시 숨이 차는 현상, 수면 중 호흡패턴의 변화(주기적 호흡), 자다가 자주 깨는 현상,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현상 등이 그것입니다.

5. 우리가 고도를 높이면 우리 몸이 줄어드는 산소 환경에 점차 순응해 가게 되는데, 만약 몸이 순응할 수 있는 상한 고도 이상으로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산소를 확보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고산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지 고산병이 발생하는 정확한 기전은 아직 모르나 그 증상은 저산소증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약간의 뇌조직의 부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종이 진행해서 점점 심해지면 고소뇌부종이 되며 심각한 뇌기능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약간의 뇌부종은 두통 외 몇 가지 증상을 유발합니다.

6. 최근 2,500m 이상 고도로 올라온 후 두통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 나타나면 고산병이 온 것입니다. 첫째 식욕을 잃거나 구역 또는 구토 증상, 둘째 피로나 무기력증, 셋째 어지러움, 넷째 불면증이 그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심한 숙취와 그 증상이 비슷합니다. 증상은 좀더 심하거나 가벼울 수 있습니다. 두통은 지속적이고 상당히 심하게 아프며 앞 머리 쪽이 아픈 경우가 많고 등산화 끈이라도 다시 매려고 앞으로 숙이거나 하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고소에서는 탈수에 의한 두통이 흔하므로 물을 1리터 정도 마시고 타이레놀을 한 알 복용하여 잠시 후 두통과 다른 증상이 모두 사라지면 고산병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고산병이 오면 머리가 아프고 식욕도 없으며 매사가 귀찮아져서 혼자 있고 싶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행에서 낙오되어 남겨진다거나 하산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몸 상태를 묻는 동료의 질문에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애써 다른 뜻으로 돌리며 괜찮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행 중 누구라도 유난히 뒤쳐진다거나, 장 시간 걷은 후에도 식욕이 없다면서 거의 먹지 않는 경우, 혼자 있으려고 하고 매사 귀찮아 하는 경우는 고산병 발병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고산병의 증상은 대개 고소에 오르기 시작 후 약 6시간에서 10시간째부터 나타나며 대부분 만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 중 일부만이 심한 증세로 진행하며, 빨리 걷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등 힘을 더 많이 쓰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 집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산소 공급이 부족한 터에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 요구량을 더 늘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7. 고소에서는 어느 정도 두통이 있게 마련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산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이는 개개의 생리적 특성과 등반 속도에 주로 연관되어 나타나며, 누가 고산병이 올지 예측할 방법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나 남녀 차이, 신체조건, 이전의 고산 등반 경험 등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신체 건강할 젊은이 보다는 오히려 나이든 사람의 경우 고산병이 덜 온다고도 하며 이는 체력상 보다 천천히 걷고 뇌 위축 상태가 보다 많을 수 있으므로 두개강 내 여유 공간이 좀 더 많아서 같은 뇌부종에 대해서도 완충의 여지가 많으므로 그렇다고 설명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소순응이 빨리 되고 어떤 이는 같은 코스를 천천히 올라가는 데도 불구하고 고소순응이 늦어서 일정을 늦추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같은 사람의 경우도 같은 코스를 같은 일정으로 가도 어떤 때는 고소로 시달리고 어떤 때는 멀쩡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산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나 올바르게 대처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고산병의 주된 치료는 휴식, 수분섭취, 진통제(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복용입니다. 이런 약제들은 고산병이 악화되는 상태를 약효로 가려서 헛갈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고산병이 나타난 고도에서 하루 이틀 휴식하면 좋아집니다. 간혹 3-4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산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그 고도에서 휴식하는 것 보다 회복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일부에서는 가벼운 고산병은 의식적으로 매 5분 마다 심호흡을 빨리 10-12번 정도 하면조절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많은 전문 의견은 이와 다릅니다.

오히려 무리한 과호흡은 더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과호흡은 산소를 좀 더 공급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서 혈중 이산화탄소가 낮아지고 이는 뇌로가는 혈관을 수축시켜 뇌에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어지럽고, 실신할 수도 있으며 또한 혈중 이산화탄소가 낮아져서 생기는 알칼리증은 근육과 신경에 지장을 초래하여 저릿저릿함과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심한 경우 뇌간의 호흡중추를 억제하여 거의 실신할 정도의 호흡억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9. 대표적인 고산병 치료약으로 아세타졸아미드(다이아목스)가 있습니다. 이 약물의 기본적인 작용은 콩팥에서 알칼리인 중탄산나트륨과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입니다. 고소에서 부족한 산소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과호흡이 산소 확보와 더불어 이산화탄소를 필요 이상으로 내보내게 되어 우리 몸의 산-염기 균형이 깨어지며 호흡성 알칼리 상태가 되고 이는 다시 호흡 중추를 억제하여 호흡을 줄이게 됩니다. 다이아목스의 작용으로 소변으로 알칼리를 보다 많이 내보내며 우리 몸은 다시 산성쪽으로 기울게 되고 이는 호흡 중추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이아목스의 전체적인 효과는 고소 순응이 빨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대개 고산병에서 회복 되는 데는 24~48시간 정도 걸리나 다이아목스 복용은 이것을 12~24시간 정도로 빨리 되도록 합니다. 다이아목스는 설파계 약물이므로 설파계 약물(박트림 등)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복용하면 안됩니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손, 발, 입술 등에 감각이 무뎠지거나, 저린 느낌, 또는 진동 느낌 등이 있으며 맥주 맛이 영 없어진다거나 구울림 현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큰 문제는 아니며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손발 저린 증상은 우리 팀원 복용자 6명(250mg 씩 하루 2회 복용)중 4명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으며 별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는 복용량에 따라서 저린 증상이 심하면 복용량을 125mg씩으로 감량하면 좋아집니다. 대개 체중 50Kg에 가까우면 125mg, 체중이 70Kg이상이면 250mg 씩 하루 2회가 맞는 용량입니다. 다이아목스는 고산병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증상만 좋아지게 해주는 약이 아니며 고소 순응이 빨리 오도록 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빨리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산병 증상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다이아목스를 복용하면서 올라가면 안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빨리 올라가야 하는 경우는 다이아목스 복용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고산병이 올 위험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산병이 해소된 후에 다이아목스 복용을 중단해도 다시 고산병이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다이아목스는 얼 굴이나 손발이 붓는 증상에 대한 치료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10. 덱사메타손은 뇌부종을 치료하는 강력한 스테로이드입니다. 다이아목스가 고소순응을 빨리 오게해서 고산병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덱사메타손은 뇌부종을 어느정도 완화시켜 두통,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을 치료합니다. 덱사메타손은 수시간 내에 고산병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만 고소순응이 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약 작용이 중단되고 12시간(마지막 약 복용 후 18시간)이 지나서도 고산병 증상이 없을 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덱사메타손은 4mg(대개 0.5mg 짜리가 많으므로 한번에 8알)씩 복용하며 6시간 이후 한번 더 복용합니다.

고소뇌부종의 경미한 상태가 고산병이며, 고소뇌부종 (high altitude cerebral edema; HACE)의 사망 원인은 뇌이탈(brain herniation)로, 즉 일정한 부피의 두개골 내에서 뇌가 부어서 용적이 커지면 그 압력으로 뇌가 척추 쪽으로 뚫린 구멍으로 밀려나가며 눌러서 뇌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 손상이 오고 나중에는 연수, 뇌간이 눌러

서 호흡 등 중요 생명유지 증추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소순응이 빨리 되도록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덱사메타손 치료는 고산병 치료에 중요합니다. 고압백을 사용하면 고산병 치료가 가장 신속히 됩니다. 거의 수분 내로 증상이 소실되나 너무 짧으면 재발하기도 하므로 최소 두 시간 이상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덱사메타손 치료도 고압백치료 만큼 신속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효과적이고 비용과 노력이 덜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압백 치료는 고산병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11. 고산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 1) 몸이 고소에 순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등반하며 무리하게 힘 쓰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트레킹 처음 하루 이틀이 가장 중요합니다).
- 2) 2,500m에서 3,000m 사이 고도에서 하룻밤을 머물립니다.
- 3) 3,000m 이상 고도에서는 하루에 숙박 고도를 300~500m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 4) 매 1,000m 상승 후에는 그 고도에서 진행 말고 하루 더 숙박하며 머물립니다.
- 5) 음주, 수면제, 마약성 진통제는 금합니다(이는 호흡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으며, 특히 음주는 다음날 숙취가 있는 경우 고산병 증상과 유사하여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음).

12. 약물 복용으로 하는 고산병 예방

고산병 예방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빨리 올라가야 하거나 루트 등의 사정으로 숙박 고도가 하루 500m 이상 올라야 하는 경우에는 다이아목스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쿨부 지역 트레킹의 경우 남체는 지리적 특성상 하루에 800m 이상 올라와서 자게 되는 곳이므로 다이아목스 복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중에 따라 125~250mg을 하루 2회 복용합니다. 고소에 오르기 24시간 전부터 복용을 시작하며 하산 때까지 또는 최고 고도에 도착 후 3일 쯤 정도에 복용 중단합니다. 설펜아미이드계 약물에 알려지만 없다면 소변이 좀 자주 마렵고, 손 발이 좀 저린 느낌이 가끔 드는 것 외에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13. ***고산병의 증상이 있으면 절대 계속 올라가면 안됩니다.***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 원칙은 절대 지켜야 합니다. 고산병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후 올라가야 합니다. 증상이 악화되면 하산해야 하며, 하산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면 치료 후 하산해야 합니다.

14. 고소뇌부종(high altitude cerebral edema; HACE)은 고산병의 심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뇌가 부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고소뇌부종은 빠르게 진행해서 수시간 또는 하루나 이틀 안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뇌부종에 걸린 사람은 뇌기능 장애로 인해 혼동상태가 와서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인식 못할 수도 흔히 있습니다. 고소뇌부종의 특징은 정신 상태나 사고 능력에 변화가 오는 것으로 혼동이나 착란, 행동의 변화, 무기력 상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아탁시아(ataxia)라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듯한 운동실조 상태를 보입니다.

바닥에 일직선을 그어 놓고 앞발 발가락 쪽 끝에 뒷발 발뒤꿈치를 가져다 놓으며 걷게 하는 테스트(tandem gait test; 직렬보행검사)를 해보면 심하게 비틀거리거나 선에서 벗어나거나 심하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뇌부종이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소뇌부종이 온 것으로 판단되면(고산병 증상에다가 더하기 운동실조(아탁시아) 또는정신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고산병의 증상이 없더라도 아탁시아와 정신상태의 변화가 둘 다 있는 경우는 고소뇌부종 상태로 판단합니다) 즉시 하산하여야 합니다. 지체하면 생명이 위협해질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기다리다가 남체에서 고소뇌부종으로 사망한 트래커 들도 있습니다. 랜턴과 하산할 동반자 그리고 포터들을 챙겨서 지체하지 말고 하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날씨나 지역적 상황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당장은 하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뇌부종 정도가 심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하산은 매우 어렵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산소치료, 고압백, 텍사메타손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텍사메타손은 8mg을 경구투여하고(근육주사가 가능한 경우는 8mg 근육주사로 투여) 그 후 6시간마다 4mg을 경구 또는 근육주사로 투여합니다. 그리고 고압백을 사용할 수 있으면 아주 극적으로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고압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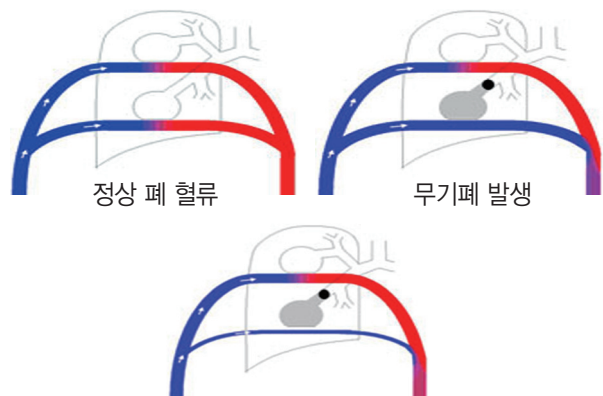
치료는 한시간 간격으로 상태를 체크하면서 4~6시간 정도 치료합니다. 물론 산소가 가용하다면 분당 4리터 속도로 4~6시간 사용합니다. 환자 상태가 이런 치료로 좋아지고 하산할 조건이 되면 즉시 하산하여야 합니다.

고소뇌부종 환자의 대부분이 고산병의 증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등반해서 올라온 사람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산병 증상이 없었던 고도 정도로 하산하려면 이틀 전 숙박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잘 판단이 안되면 500~1,000m 정도 하산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고소뇌부종 환자는 빠른 시간 내에 충분히 하산하면 대개 살 수 있으며 완전히 회복 됩니다. 정신 상태는 빠른 회복을 보이거나(텍사메타손+고압백 치료 수시간 후 또는 하산하여 자고 나면) 어느 정도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는 하산 후에도 며칠 또는 몇 주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고 증상이 전혀 없으면(아탁시아도 완전히 없어졌다면) 조심스럽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15. 고소폐부종(high altitude pulmonary edema; HAPE)은 고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다른 형태의 심한 병입니다. 고산병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고소폐부종은 고산병과 연관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으며 고산병의 증상은 전혀 없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폐에서는 부분적인 폐렴이나 무기폐 등이 생겨서 그 부위에서 산소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곳으로 가는 폐동맥에 수축 작용이 나타나 혈액을 덜 가게 하고 다른 건강한 폐로 혈액이 많이 흐르게 하여 최종적으로 폐를 거치고 회수되는 혈중에 보다 많은 산소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무기폐 발생 부위 혈관 수축으로 최종 회수 혈 중 더 많은 산소 획득

고소에서는 전체 폐의 폐포에 산소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폐동맥 수축 작용이 전체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혈관 수축은 전체 부위에서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일부 혈관에서는 상대적으로 혈류가 증가하여 이 부위의 모세혈관 압이 상승하고 혈장이나 혈액세포들의 누출이 일어나며 이런 현상들이 고소폐부종의 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고소폐부종의 초기 증상으로는 계속되는 기침과 걸음이 현저히 느려지고 활동이 적어지는 것 입니다. 병이 진행하면 휴식 시에도 숨가쁨, 기침(핑크색이나 거품 같은 가래가 나오기도 함), 극도의 피로와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무력, 가슴이 뻐뻐하고 갑갑해지는 증상이 있으며, 징후로는 청진 상 수포음, 입술이나 손톱의 청색증, 빠르고 얇은 호흡, 빠른 맥박이 있습니다. 앞에 열거한 증상과 징후 들에서 각각 2가지 이상 나타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있어서 진단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고소폐부종 환자들은 산소포화도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물론 고소폐부종이 점차 오고 있는 환자에서는 정상 산소포화도 수치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평지에서 약 100m 정도 걷게 하고 다시 측정해 보면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500m 이하의 고도에서 산소포화도가 70%보다 훨씬 이하로 나오면 대개 고소폐부종이 온 것으로 진단 됩니다. 이런 고도에서 고소폐부종 환자들은 산소포화도 수치가 대개 50-60% 정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기침과 심한 피로 더하기 낮은 산소포화도와 청진상 호흡잡음 또는 낮은 산소포화도와 빠른 맥박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며 호흡곤란이나 숨이 가쁜 증상은 오히려 적게 나타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극심한 피로감과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움직이기 곤란한 상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치료는 고소뇌부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빠른 하산입니다. 이 경우는 환자가 걷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활동 자체가 폐동맥 압의 상승을 악화시키므로 엎거나 들 것 또는 말 등을 이

용하여 이송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위도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보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고소폐부종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수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로는 니페디핀(아달라트) 10mg은 씹어서 10mg은 삼켜서 복용하며 4시간 마다 10mg씩 복용하거나 아달라트오로스(20mg) 같은 서방정을 8시간 마다 복용하게 합니다. 대개 이 치료로 산소포화도는 어느 정도 좋아지나 이 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압백 치료는 상당히 효과적이며 매 시간 환자 상태를 체크하면서 2~4시간 치료합니다. 물론 산소가 가용하면 산소흡입을 시킵니다(분당 4리터로 4~6시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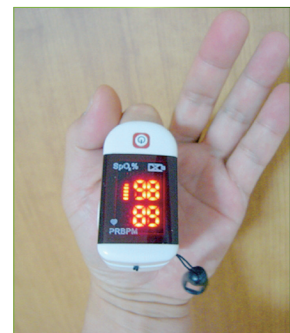
16. 고소폐부종의 예방



물론 천천히 등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고소폐부종이 왔었거나 반복해서 발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니페디핀을 항상 지참했다가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여야 하며, 특히 반복 발생 경험자는 니페디핀서방정(20mg)을 8시간 마다 복용하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아그라를 50mg씩(또는 씨알리스 10mg, 자이테나 100mg 등)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면 폐동맥 확장 효과가 있어서 훌륭한 예방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아그라 종류(phosphodiesterase-5 inhibitor)는 고산병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7. 아침에 혼수 상태로 발견된 경우는 즉시 호흡상태, 산소포화도, 신경학적 검사를 하고 고소뇌부종과 고소폐부종이 동시에 온 것으로 판단되면 텍사메타손 8mg 근육주사, 니페디핀 20mg 혀 밑에 넣거나 캡슐은 찢어 입안에 넣고, 가용하면 산소흡입, 고압백 치료를 한 시간 실시합니다. 대개 한 시간 정도면 의식이 돌아오며 이후 정황을 파악하여 후속 치료를 합니다.



손가락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

18. 산소포화도 측정은 finger pulse oxymeter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피도 작고 가격이 저렴한 모델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품은 아직은 고가의 것만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비용이 저렴합니다. 싼 것은 50불(USD) 정도 하는 것도 있으나 대체로 150불 정도하는 것이 고장도 잘 안 나고 성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생산되며 FDA 승인된 모델과 가격도 같으며 기계적으로 동일하며 성능도 같으나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산소포화도 측정하는 모습

산소포화도를 측정해보면 편히 휴식할 때 측정한 수치 가카트만두(1,300m)에서는 97%, 루클라(2,850m)에서 86~95%, 남체(3,440m)에서 85~92%, 덩보체(4,350m)에서 81~86%, 로부제(4,930m)에서 75~82%, 고랍색(5,160m)에서 71~80%정도 측정이 됩니다. 이는 정상 수치이며 어느 정도의 고소뇌부종, 폐부종 증상을 보인 경우 5,300m에서 59~63%의 산소포화도 수치로 측정 되었었습니다.



고랍색(5,160m)과 무모리



칼라파타르(5,550m)에서 에베레스트를 배경으로

19. 요약 (고산등반, 트레킹 시)

고산병 예방

- 1) 일정을 넉넉히 계획해야 하며, 천천히 걷고 용쓰는 행동은 지양하고 물을 충분히 마신다(5,000m 정도까지, 하루 3리터 정도).
- 2) 고산병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나, 일정이 좀 빠빠한 경우
 - 고소에 오르기 하루 전부터 디아모кс(250mg씩 하루 2회)복용,
 - 고소에 오르는 날부터 비아그라(50mg씩 하루 2회) 복용, 이는 하산 시작시 까지 복용을 유지합니다.

고산병 치료

- 1) 휴식+물+디아모кс(250mg씩 하루 2회)+텍사메타손 (4mg 복용하고 6시간 후 4mg 더 복용)
- 2) 하산
 - 고소뇌부종 치료
 - 텍사메타손 주사(8mg 근주, 이후 6시간 마다 4mg 근주 또는 경구), 고압백 치료, 하산고소폐부종 치료
 - 니페디핀(초회 20mg, 4시간 마다 10mg 복용), 고압백 치료, 하산



영천, 우로지(牛老池)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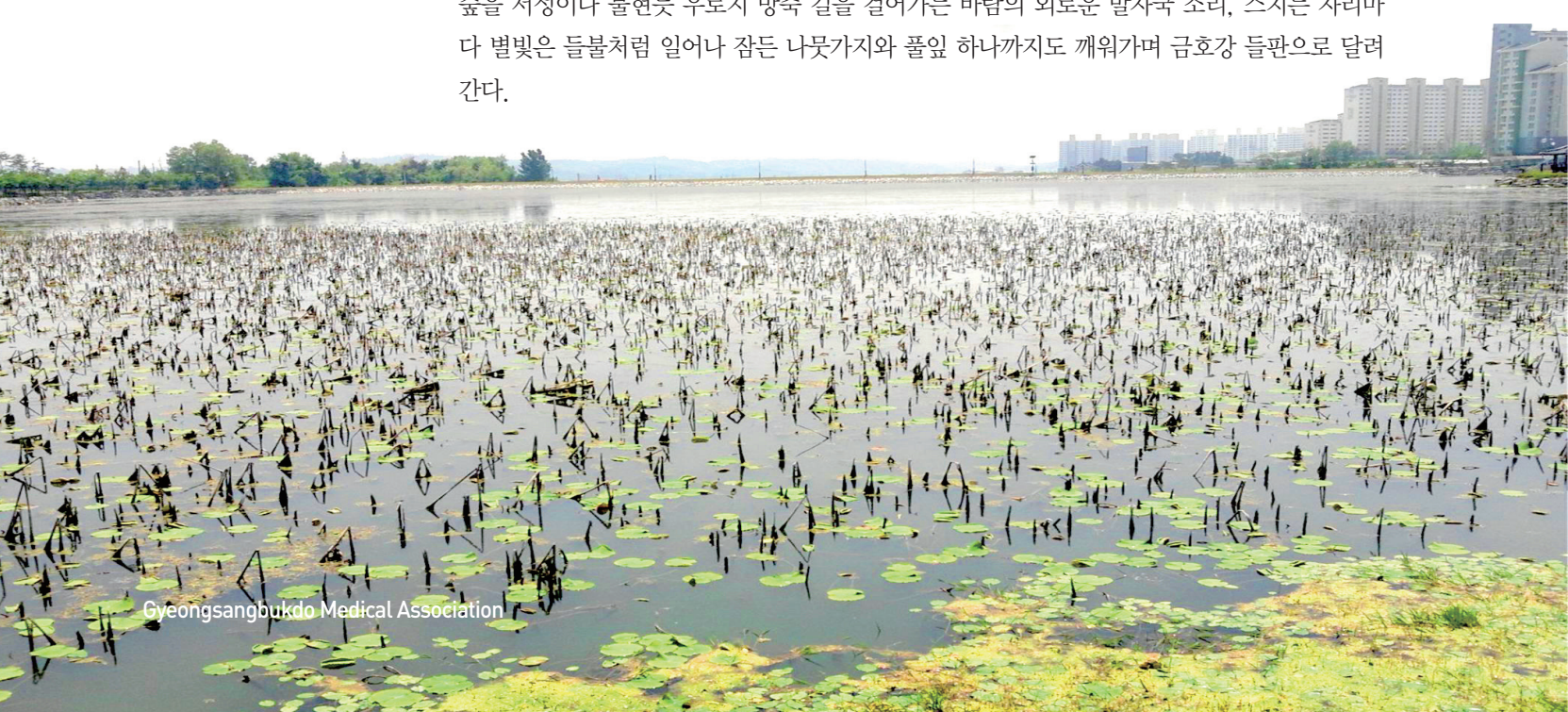
박 승 훈 과장
경북도립 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포항)
현 의사신문 칼럼니스트

보현산(普賢山)을 넘어오는 북서풍이 금호강 노천(露天)의 남서풍으로 바뀔 즈음이면, 우로지 야트막한 언덕의 호수에도 바람은 계절의 변화를 알린다. 목조교각(木造橋脚) 아래에는 잔물결에 흔들리며 연초록의 물풀이 고개를 내밀고,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산책객들에게 새봄의 첫 인사를 올린다. 포근한 남풍이 못 독길을 스치면 메마른 흙의 틈새마다 냉이와 썩이 돌아나고, 제방 아래 과수원 그루터기에는 복사꽃 꽃망울의 부푼 기승이 터질 듯하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 봄날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일까. 우로지 방죽(防築) 길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다. 찬바람에 놀란 듯 한가하게 물 위를 노닐던 청둥오리가 갈대숲으로 자취를 감추고, 뱃나무 가지에 흐드러진 하얀 꽃잎들이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있다. 때마침 찾아온 황사(黃砂)는 호수 위로 아스라한 보현산 자락의 윤곽마저 지워버린다.

라일락과 조팝나무, 복사꽃으로 이어지는 우로지의 화창한 꽃잎 잔치는, 4월 초에 갑작스레 찾아온 추위로 아마도 며칠은 늦어지리라. 그래도 우로지 쉼터의 정자(亭子) 기와지붕에 눈부시게 부서지는 봄볕은, 호숫가에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 아래 양지바른 벤치로 쏟아져 내린다. 햇살 고운 공원의 놀이터에는 소풍 나온 유치원 아이들이 재잘거리며 웃는 소리, 잔디밭에는 갓 피어난 새싹들이 보송보송한 손가락을 살짝 내밀고 있다.

호수는 깊은 밤중에도 잠들지 않는다. 시골 도시의 희미한 가로등마저 불빛을 잃으면, 멀리 보현산 하늘이 다가와 살포시 우로지에 내려앉는다. 어둠 속에 하늘과 호수의 빛들이 어우러지면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물인지, 별들은 뒤척이는 물결 위를 깜박이며 떠다닌다. 호숫가 갈대숲을 서성이다 불현듯 우로지 방죽 길을 걸어가는 바람의 외로운 발자국 소리, 스치는 자리마다 별빛은 들불처럼 일어나 잠든 나뭇가지와 풀잎 하나까지도 깨워가며 금호강 들판으로 달려간다.





우로지의 밤은 눈에 보이는 것도 별빛이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듯 발에 밟히는 것도 오로지 별빛뿐이다. 한낮의 밝은 세상이 있다면 별빛으로 빛나는 밤의 세상도 있음을... 우리는 종종 어둠 속에 살아있는 빛과 생명을 망각해버리고, 한낮의 밝은 삶에만, 그저 보이고 움직이는 것에만 익숙하며 연연(戀戀)해한다. 무엇이 낮이고 밤이며, 무엇이 밝음과 어둠을 구분하는가. 하루는 오직 삶의 인과적(因果的) 사슬의 부분일 뿐이다. 별들이 떠나고 물빛이 돌아오는 새벽이 되면, 우로지는 비로소 선잠에서 일어나 화사한 꽃들의 잔치를 준비한다. 그리고 잔잔한 물결 위에 다시금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을 맞이한다.

영천(永川)은 바람이 많은 도시이다. 사방으로 높은 산들에 둘러싸이고, 금호강 상류의 지천(支川)이 도심을 관통하며 낮은 평야지대를 이루는, 지형적으로 독특한 분지의 형태를 보인다. 그러기에 근접한 대구나 경주에 비해 겨울은 혹독하게 춥고 여름은 몹시 무더운 곳이다. 또한 일교차가 심하고 배수가 원활하여, 강을 중심으로 밀집해있는 과수원은 사과를 비롯한 과일 재배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우로지는, 영천시의 동북쪽, 금호강의 원류인 영천댐을 향하는 길목의 바람 많은 들판에 위치하고 있다.

영천과의 인연은 꽤나 오래된 듯하다. 전문의 수료 후 처음 개업한 곳이 영천이지만, 그 이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육군3사관학교에서 군의관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곳도 영천시 인근의 고경면이다. 공직 은퇴 후에도 망정동 요양병원의 근무의사로 잠시 머물렀으니, 30여 년 인생 중반을 대구와 영천을 오간 게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겨울이면 바람 센 금호강 별판의 황량하기 그지없는 이 작은 도시가 언제부터인가 '별빛촌'이라는 로고 (logo)와 함께 도시 정비를 시작했다.

대구와 경주를 잇는 외곽의 고속화 도로와 대구-포항간의 익산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영천 영대병원이 있는 도시 입구의 도로를 확장하고, 도심의 강변 북쪽에 시청 신청사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지역이 들어서면서 신시가지가 형성했다. 초라한 영천역도 허물어 다시 짓고, 차량과 인파로 혼잡했던 완산동 옛 시장도 상가를 재편하여 지금의 영천시는 과거와는 전혀 판판이다. 대구 동편의 교통요지이기는 하나 오랫동안 구태(舊態)의 시골로 남아있던 영천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우로지는 영천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간 농지와 과수원에 물을 공급하던 저수지였다. 80년대 이후 농촌의 산업화 열풍과 함께 공단(工團)이 들어서면서부터 그 역할과 크기가 줄어들었고 낚시꾼들만이 즐겨 찾는 커다란 늪지대로 남아 있었다. 영천이 지역자치제 도시계획으로 신도시로 변화하면서 우로지도 그 모습이 바뀌었다. 2006년 영천시가 우로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1.5km의 산책로와 노변의 뱃나무, 정자, 아이들의 놀이터와 나무 교각을 신설하고 주위의 생태환경을 정비하였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물속을 활보하는 외래종 배스(Bass)가 우로지의 주종이 되었고, 물풀과 수련(睡蓮) 위를 거니는 붉은 귀 거북(Red-eared slider)들의 늘어난 개체수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별빛촌’이라는 새롭게 등장한 영천시의 로고는, 아마도 천문대가 있는 보현산(해발 1124m)과 산기슭에 자리한 화북면 정각리의 ‘별빛 마을’이라는 명칭에서 비롯했으리라. 2개의 정상 봉우리를 가진 보현산은 주변 산들의 중심에 있어 그 모습이 매우 장대하다. 인근에 큰 도시가 없어 시가지 불빛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천문대의 위치로는 안성맞춤이다. 청명한 날 산정에 서면 산들의 숲이라고나 할까, 백두대간의 산들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그러기에 사시사철 등산객과 하늘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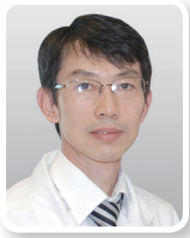
밤이 되면 보현산의 드넓은 하늘 사방에 화려한 별빛의 장관이 펼쳐진다. 누군들 밤하늘의 별들을 신비롭게 바라보지 않는 이들이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하늘 가득 무수한 별들과 산마루에 쏟아지는 별빛은, 우물 옛터에 솟아나는 맑은 샘물처럼 세대로 이어지는 전설같은 향수이며, 우리의 경외심으로 충만한 영혼의 고향이다. 태백산맥의 줄기인 중앙산맥의 중심부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 호수 전체를 아우르는 보현산의 별빛 축제, 당신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시공간의 어둠 속에서 원초적인 빛의 세상을 꿈꾸게 되리라.

포은(圃隱) 정몽주의 임고서원(臨臯書院)이나 금호강 상류의 복사꽃 축제를 구경하러 가는 길이면, 영천담을 향하는 국도변에 자리한 이곳 우로지의 주차장에 차를 세운다. 주변의 풍광을 즐기고 봄나들이를 하기에는 여기만큼 화사하고 평안한 곳도 흔치 않다. 대구에도 수성못 유원지의 벚꽃 독일이 있지만 주변에는 위락시설이 즐비하고, 승용차로 혼잡한 공원 입구의 좁은 도로는 분주하고 시끄럽기만 하다. 또한 저녁 시간이면 봄비는 산책객들로 인해 쉼터의 여유로움 역시 찾을 수 없다. 그러기에 대구를 벗어나 일 년에 두어 번 우로지에 서는 날이면, 일상적인 상념(想念)의 틀은 사라지고 모처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만, 나이가 드니 사람 만나는 일만큼 두렵고 불안한 일도 없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산책과 산행으로 홀로 걷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버렸다. 산책길의 명상은 우리의 감성을 자유롭게 한다. 우로지 방죽 길을 한참 걷다보면 잡념은 사라지고 풍경만 남는다. 명상이라는 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參禪)이라는 것도, 결국은 잡다한 생각과 욕심을 버리면서 자신의 걸모습을 지우려함이다. 마르티카 러시아 인형처럼 한 겹씩 벗겨 가면, 보고 느끼는 풍경조차도 있는 듯 없는 듯 모두가 허허로운 상태가 된다. 흐트러진 일상과 고된 삶에 누적된 세월의 풍상(風霜), 채워온 만큼 버리고 비워야 함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연륜의 몫이 아닐까.

황사는 끝났지만 아직은 꽃샘추위로 쌀렁한 우로지 공원, 돌아서는 빈 들판에 봄비가 내리고 하늘 가득 벚꽃 이파리가 눈처럼 흩날린다.

벚꽃을 따라, 아이가 달린다



서억수 교수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안과(경주)

서울에서 아이가 내려왔습니다.
이른 아침 아이와 함께 김유신 장군묘 앞 벚꽃 길을 걸었습니다.
조금 걷더니, 아이는 꽃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나도 아이와 함께 달렸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벚꽃은 간혹 불어오는 바람결에 분분히 훑날립니다.
기쁨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그렇다고 슬픔도 아닌 먹먹함이 내 가슴으로 밀려왔습니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아 보았습니다.
마르고 건조한 내 가슴에 아이의 따스하고 몽실한 감촉이 전해옵니다.
머리 위로 슬픔인지 기쁨인지 모를,
슬픔도 기쁨도 아닌 벚꽃들이 피었다간 분분히 흩어집니다.
봄이 오고, 봄날은 가고 있습니다.

꽃아,
봄마다 개벽하는 꽃아

무슨 슬픔이기에
또 무슨 기쁨이기에
봄마다 그리 흐드러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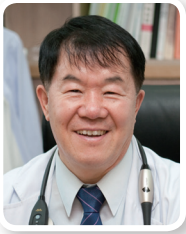
혹 슬픔으로 피어나거든
내 가슴 속에 지고
혹 기쁨이거든
달리는 아이 웃음 속에 머물러다오.

꽃아,
봄마다 피고 지는 꽃아.
무슨 설움, 무슨 노래이기에
또 봄마다 紛紛히 그리 흘러가는가.

혹 참지 못할 설움이라면
내 눈물 속에 지고
하늘까지 닿는 노래이라면
달리는 아이 깃가에 머물러다오.

꽃아, 봄마다 개벽하는 꽃아.

돌나물



이 중 규 원장
연세가정의학과의원(울진)

봄을 상징하는 색이라면 연녹색이 아닐까? 연한 녹색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아늑한 색이라고 한다. 언제 보아도 피로하지 않은 색이다. 게다가 청순하다. 밭아래 땅으로만 기어가듯이 자라는 새파란 연녹색의 잎사귀. 통통한 쌀알 같은 모습으로 삐죽거리며 서로 시샘하듯이 군락지어 자생하는 모습들. 이슬을 살그머니 보듬은 청초한 모습이 예쁘다. 봄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돌나물이다.

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맨 젊은 아낙네가 부엌칼로 살짝 줄기를 자른다. 가냘픈 손이지만 칼을 다루는 놀림이 몹시 잼싸고 날렵하다. 끊어낸 줄기를 살살 흔들면 품고 있던 흙이 떨어진다. 낡은 바구니에 조심스레 담는다. 이미 꽤 수북한 돌나물이 들어있다. 가끔 냉이도 보인다. 뿌리가 동글동글한 달래도 서너 뿌리가 보인다. 보리 고개를 견디는 일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더 멍울지게 만든다.

배가 고파서 울었다. 나물 캐러 간 어머니가 그리워서 더욱 쉽게 보채곤 했다. 보채는 아이를 등에 업은 사내 녀석은 눈물을 짜는 일조차 귀찮았다. 본능적으로 부엌의 찬장을 뒤져 보았지만 먹을 거라곤 말라버린 소금이 붙어있는 간장 종지가 전부다. 그냥 무표정하게 계집아이를 등에 업고 싱그러움 봄바람에 실려 오는 보리내음을 따라 동구 밖으로 나섰다. 멀리 논두렁에 나물 캐는 아낙들의 모습이 보인다. 올라 지친 아이는 고개를 떨치고 잠이 들었다. 낡은 포대기 위로 계집아이의 허연 코가 묻어 있다. 그 즈음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동여맨 채 사립문을 들어섰다. 이젠 해방이나 다름없다. 사내 녀석은 등에 업힌 아이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엄마~ 배고파....”를 계속 주절거린다. 달덩이 같은 얼굴이지만 해쓱한 어머니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글썽거렸다. 아무것도 줄 게 없어서 어머니는 또 한 번 굵은 눈물을 흘렸다.

냉이와 달래를 곱게 씻었다. 돌나물은 소금을 살짝 끼얹고 절이는 과정을 거쳐 물김치를 만들었다. 달래와 냉이로는 된장찌개를 만들었다. 지아비의 배급 날은 때로 쌀로 봉급을 주기도 했다. 보리나 밀가루로 봉급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봉급날이 가까워지면 더욱 배가 고프고 기막힐 정도로 서글퍼지지만 했다. 지난밤에는 지치고 허기진 몸이라 저절로 눈이 감겼다. 먹을 양식이라곤 보리 한 줍이 전부다. 그걸 몽땅 털어 넣고 끓였다. 내일은 봉급날이니 운이 좋으면 쌀밥을 먹을 수도 있다. 삼순구식을 하면서도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는 질기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 희망이 봉급날까지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한밤중이나 되어서야 빨래를 널고 자리에 누우려니 기가 막혀서 눈물이 흐른다.

어느 세월에 이런 가난에서 헤어 날 수가 있을지... 흐르는 눈물을 겨우 억누르며 잠자리에 누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서글픈 눈물은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다. 특히 친정 식구들이 알까봐 몹시도 두렵기만 했다. 곱게 기른 큰 딸은 음성 읍내의 자랑이고 가문의 영광이나 다름없다. 전국의 수재들에게만 허락되는 사범학교 졸업생은 그야말로 봉이나 다름없다. 그런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친정 식구들이다. 그날 밤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면서도 잠자리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를 악물고 숨소리를 죽였다.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던 정말 괴롭고 부끄러운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 서글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먼동이 트고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감미롭기만 했다. 마지막 한 줍 남아있던 보리쌀을 비우고 나니 짐짓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극심한 춘궁기에는 젓먹이에게 빨릴 젓조차도 메말라 버렸다. 물 한 사발을 들이 키고 출근하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또 눈물이 흐른다.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감추다가 풀밭에서 파릇하게 새로 돌아나는 싹이 눈에 띄었다. 돌나물이다. 그래 이것이라도...

봄에 돌아오는 새싹에는 영양이 많다고들 한다. 업은 아이가 깨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 나물 바꾸니와 아쉬운 대로 부엌칼을 들고 나섰다. 햇살이 따사롭다. 우선 눈에 띄는 냉이를 뽑았다. 너무 자란 냉이는 역세서 아이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신작로에 뽕얀 먼지를 일으키며 미군 트럭이 지나간다. 길옆의 논두렁을 따라 가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폈다. 돌나물 군락지다. 냉이도 보인다. 이름 모를 무덤근처에는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봄바람에 흔들리는 할미꽃이 정말로 예쁘기만 했다. 아주 어릴 적 친정어머니를 따라 그렇게 나물을 캐곤 했다. 냉이는 된장찌개를 만들고 달래는 무쳐서 반찬을 만들고 돌나물은 깨끗이 씻어서 물김치를 만들기로 했다. 다른 생각이 없이 한바구니 가득히 나물을 뜯었다. 막상 부엌에 들어와서 밥을 지으려니 그만 비어있는 쌀 항아리가 원망스럽기만 했다. 봉급이 연기되지 않으면 젓먹이에게 미음이라도 끓여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뿐이다. 온종일을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보냈다. 저녁 퇴근 할 때까지만 아이들이 보채지 말았으면 좋겠다. 점심은 또 커다란 물 한 대접을 들이켰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아니 조금만 더 참아야지. 하교시간이 아직은 두어 시간이 더 있어야 했다.

그 때였다.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인기척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학교 소사가 심부름이라며 내려놓은 쌀과 우유가루에 그만 복받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다. 어디에서 이런 힘이 솟는지 모른다. 가련하고 나약한 아녀자의 몸이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채는 아이들의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일은 굶주림에 지친 어미의 가장 큰 바람이고 만족인 동시

에 행복이다. 자신의 주린 배는 아무렇게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았다. 우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기쁨이야 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 그날 저녁 부뚜막에서 끓고 있는 된장찌개는 정말로 구수했다. 손갈을 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한 행복을 느꼈다. 식탁 한가운데 물김치는 유일한 별식이다. 물김치에 밥을 말아 먹는 그 모습이 어쩌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는 먼발치에서 나물캐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렇게 보아 왔다. 그때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보리 고개는 참으로 넘기 힘든 고개다.

도월의 아늑한 곳에 동창생들이 정성들여 집을 지었다.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지었다. 먼 곳의 또 다른 동창생을 위해서 더욱 세심하게 집을 지었다. 뒤편에도 트랙을 만들어 여유 공간을 만들었다. 여기저기 나무를 심어서 조경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봄비가 함초롬하게 오더니 햇살이 따사롭다. 트랙을 거닐다가 돌쩌귀 틈에서 파릇하게 새싹이 돋은 게 보인다. 돌나물이다. 어떻게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파란 싹을 틔웠는지 모른다. 돌나물 한 포기다. 불현 듯 지난 어릴 적 굶주렸던 일들이 생각난다. 달덩이 같이 곱기만 하고 포근하기만 했던 모습이 못 견디게 그림다. 육십 평생의 모든 푸념을 웃으면서 받아 주시던 분! 딱 한 번 만이라도 다시 볼 수만 있어도 여한이 없을 그 얼굴이 너무도 그림다. 콧잔등이 시큰 해진다. 이제는 누가 돌나물김치를 만들어 줄까? 비록 그 때의 그 맛은 아닐지라도...

2015.4.10. zl3jkl

▼ 동창생들이 지은 집



조선시대 표류기

1. 류큐 열도를 중단한 제주 사람들



김종규 과장
안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요즘이야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도리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지만 30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이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었다. 주변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동네의 화제가 되곤 했다. 30년 전에도 그러했는데 조선시대에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명나라 혹은 청나라로 가는 사신 행렬을 따라가거나,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 행렬을 따라가는 정도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흔하지 않은 기회였다. 사신으로 조금 더 먼 나라로 간 경우도 있기는 하다. 조선 초기의 외교관 이에는 태종 때 류큐 왕국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나랏일이 아니면서 해외로 나간 사람들도 제법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귀환 후 그 과정을 기록으로 혹은 구술로 남겼다. 남쪽으로 멀리 간 경우로는 19세기 초에 필리핀까지 표류했다가 돌아온 흑산도의 홍어 장수 문순득이 있고, 15세기 후반에 류큐 열도 남서단의 야에야마 제도까지 표류했다 돌아온 제주도의 김비의 일행이 있다. 서쪽으로 가장 멀리 간 경우는 베트남까지 간 조완벽과 김대황이 있다. 조완벽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한문 실력으로 일본의 부호에게 발탁되어 상선을 타고 무역을 위해 베트남까지 갔고, 김대황은 제주도의 관리로 17세기 후반에 역시 베트남까지 표류했다가 귀환했다. 그 외 18세기 말에 대만까지 표류했다가 돌아온 이방익이 있고, 15세기 후반에 항주 근처까지 표류했다가 돌아온 김배희 일행이나, 비슷한 시기 비슷한 지역으로 표류했다가 『표해록』을 남긴 최부도 있다. 동해로는 18세기 중반 홋카이도 근처까지 표류했다가 귀환한 무관 이지향이 있다. 이들 중 자세한 기록이 전하는 몇몇의 표류 혹은 여행 과정을 연재하려고 한다.

1. 류큐 열도를 중단한 제주 사람들
2. 임란포로가 전한 베트남의 한류 스타
3. 필리핀어 통역을 한 흑산도 홍어 장수
4. 15세기 지식인의 동중국 여행기
5. 연암 박지원이 대필한 대만 표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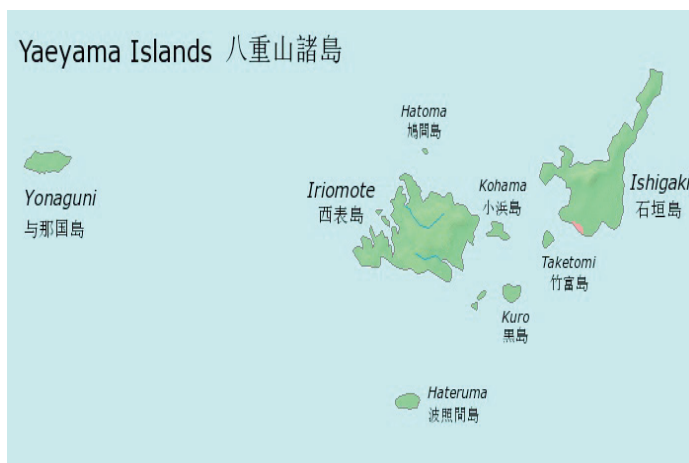
이번 글에서는 류큐 열도의 남서단에 있는 야에야마 제도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는 요나구니 섬에 표류했다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류큐 열도를 중단한 후, 2년 후에 귀환한 제주 사람

들을 소개한다. 이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구술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성종 10년 5월 16일」 기록과 「성종 10년 6월 10일」 기록에 전한다.

1477년 음력 2월 1일 8명의 제주 사람들이 특산물인 홍귤을 진상하기 위해 배를 타고 제주를 출발했다. 이들은 추자도 인근에서 큰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된다. 거센 파도로 인해 배에 물이 찼지만 다섯 명은 심한 멀미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상태였고, 두 명은 물을 퍼내고 한 명은 키를 잡으며 버텼다. 출발 7일째부터 8일째까지 바닷물이 혼탁하였다고 하니 양자강의 하구인 상하이 인근을 지난 것 같다. 9일째부터 14일째까지는 남쪽을 향해 표류하게 된다. 이들 중 한 사람은 11일째 되던 날 굶주림과 병으로 사망하고 만다. 다른 사람들이 14일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배에 싣고 있던 물과 식량 외에도 굴이 있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류 14일째 어느 섬을 발견하고 상륙하려다가 배가 난파되어 또 네 사람이 익사하고 김비의, 강무, 이정 세 사람은 부서진 배의 판자를 잡고 살아남아, 두 척의 여선에 의해 구조되었다. 그들이 도착한 섬은 윤이시마(閔伊是麿) 혹은 允伊라고 하는 작은 섬이었다. 한자가 음차인 것을 감안하면 앞의 '윤이'는 섬의 이름이고 뒤의 '시마'는 섬을 의미하는 발음으로 생각된다. 이후 이동 경로와 여러 조건을 감안할 때 이들이 도착한 섬은 류큐 열도의 남서쪽에 있는 야에야마 제도의 유인도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요나구니 섬(與那國島)으로 추정된다. '요나'는 고유명사이고 '구니'는 나라라는 뜻인데 '요나'는 발음이 '윤이'와 비슷하기도 하다.

기록에는 섬 둘레가 이틀 길이었다고 했다. 약 29 평방킬로미터 넓이의 요나구니 섬은 현재 약 1,700명(2010년 3월 1일 기준 1,692명)이 사는 섬으로 일본에서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가장 서쪽의 섬이다. 류큐 열도 중에서도 같은 야에야마 제도에 속하는 이시가지 섬(118km)보다 대만의 화롄시(111km)와의 거리가 더 가까운 섬이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 영토 분쟁으로 인해 일본이 이 섬에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하여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한 일이 있는 섬이기도 하다. 1980년대 후반에 거대한 해저 구조물이 발견되었는데 10,000년 전 혹은 2,000~3,000년 전 인간이 만든 인공 구조물이라는 설도 있고, 자연 구조물이라는 설도 있다. 동북아 양대 세력의 충돌 현장을 보고 싶은 사람이나 고대 문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볼 만한 섬이다.



야에야마제도(위키백과에서)

표류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 섬에 살던 사람들은 100여 명으로 키가 크고, 머리가 길었는데, 남자는 앞으면 수영이 무릎에 닿았고, 여자들은 서면 머리털이 땅에 닿을 정도였다고 한다. 맨발로 다녔으며 귀걸이를 하고 목에는 몇 겹의 목걸이를 했다. 술은 토기를 말려서 만들었는데 5,6일이 지나면 깨져버렸다고 했다. 밥은 나뭇잎에 얹어서 먹었다. 술은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여자들이 불린 쌀을 씹어서 나무로 된 통에서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빚었다. 간혹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거처는 띠집이었고 침상을 사용했다. 소와 닭을 먹지 않고 죽으면 땅에 묻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장례는 죽은 사람을 관에 앉힌 자세로 동굴에 두는 방식을 취했다. 음력 2월에 벌써 벼가 무성했고, 4월에 수확하며, 5월에는 추수를 마친다고 했다.

이들은 이 섬에 6개월 가까이 머무르게 된다. 이들이 고향을 생각하고 울었더니 그 섬의 어떤 사람이 벼를 이용해 언제쯤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었다. 새 벼의 줄기를 뽑아서 옛날 벼와 비교해 보이고는 동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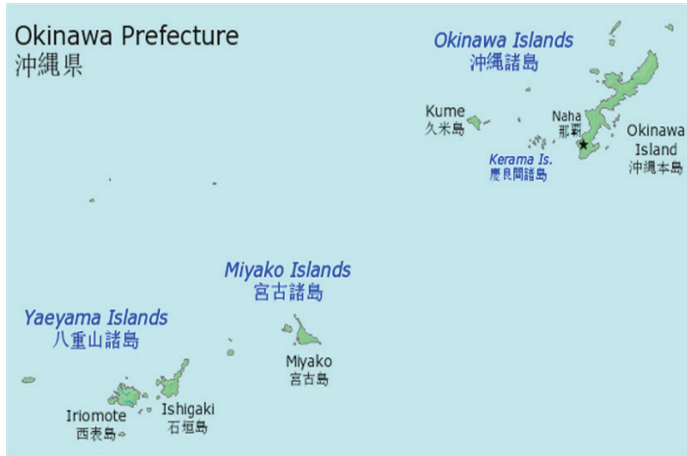
을 향하여 불었는데, 그 뜻은 새 벼가 옛 벼와 같이 익으면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불어 출발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Body language는 시대를 초월하여 통용되고 있었다. 계절풍을 이용해 항해를 해서 멀리 떨어진 섬과 교역을 한 것으로 보인다. 7월 그믐쯤 남풍이 불자 그 섬의 사람들 13명과 함께 이들 표류인들은 다른 섬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3명이 함께 한 것은 물물교환을 위해 배에 물건을 같이 싣고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다.

이들은 동쪽으로 이틀 낮 하룻밤(홍문관 구술에서는 1주야 반)을 항해해서 소내시마(所乃是鷹)라는 섬에 도착했다. 밤 동안에는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잡았을 것이다. 소내시마는 좁으면서 길었고, 돌레를 도는데 4,5일 정도 되는 제법 큰 섬이라고 했다. 좁고 길면서 요나구니 섬보다 큰 섬이라면 야에야마 제도에서 두 번째 큰 섬인 이시가키 섬(石垣島)일 가능성이 많다. 이시가키 섬은 아주 길쭉하게 생겼다. 아니면 그보다 서쪽에 있는 야에야마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이리오모테 섬(西表島) 섬일 가능성도 있다. 이 섬의 풍속은 유니시마와 비슷했지만 여자들이 코를 뚫어 검고 조그마한 나무를 꿰었고, 정강이에는 조그마한 푸른 구슬을 둘러매었다고 했다. 이 섬의 사람들은 소는 도살하여 먹고 닭고기는 먹지 않았다. 산에 산돼지가 있었다고 하니 제법 큰 섬임을 알 수 있다. 이시가키 섬은 현재 45,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큰 섬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다시 다섯 달을 머문다. 12월 그믐쯤 동쪽의 포월로마이시마(捕月老麻伊是鷹 혹은 패돌마도(悖突麻島)로 옮겨갔다. 그들은 계속해서 한 달 정도씩 머무르며 동쪽으로 포라이시마(捕刺伊是鷹 혹은 발내이도(勃乃伊島) 혹은 후이시마도(后伊是麻島) 타라마시마(他羅馬是鷹 혹은 탈라마도(脫羅麻島) 이라부시마(伊羅夫是鷹 혹은 이라과도(伊羅波島) 먹고시마(覓高是鷹 패라미고도(悖羅彌古島) 등의 섬들을 옮겨가다가 유구국(琉球國)에 들어가게 된다.

포월로마이시마(패돌마도), 포라이시마(발내이도), 후룬시마(후이시마도)는 야에야마 제도의 섬들로 추정되지만 어느 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포월로마이시마(패돌마도)는 평평하고 넓어서 산이 없었고, 모두 다 모래와 돌로 된 땅이었으며, 돌레는 소내도(所乃島)에 비교하여 조금 작았다고 했다. 야에야마 제도의 이리오모테 섬(西表島)은 이시가키에 비해 조금 크지만 둥근 형태이므로 돌레는 이시가키보다 짧을 수 있다. 현재도 숲으로 덮여있고 인구가 2,000명 정도이다. 기록에는 산이 없었다고 하니 최고 높이가 60 미터가 되지 않는 일본 최남단의 유인도 하테루마(波照間島) 섬일 가능성도 있겠다. 야에야마 제도의 섬들을 옮겨간 것은 어쩌면 이동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류큐 본 섬으로 이동할 때까지 접대하는 부담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

설성경 연세대 교수의 『홍길동전의 비밀』에 따르면 류큐에는 홍가와라의 전설이 있다고 한다. 홍가와라가 육지에서 건너와서 류큐 열도의 야에야마 제도에 들어와 수장이 되었고 류큐 왕국에 대항해 싸우다가 패배했다고 한다. 현재 오키나와에는 이 전설만이 아니라 홍가와라 후손의 족보도 있다고 한다. 한편 홍길동의 전설이 얽혀 있는 전라남도 장성에서는 해마다 홍길동 축제를 벌이면서 야에야마 시장을 초대해 교류를 벌이고 있기도 하다. 홍길동이 『연산군 일기』에는 잡힌 것으로 되어있으니 야에야마 제도까지 갔을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탈출에 성공해서 이 제도로 갔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법도 있겠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을 때 제주도 사람들이 표류했던 야에야마 제도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연산군 시절의 도적 홍길동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와 표류기에 대한 정보를 결합시켰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니 섬을 울도로 상정했을 수는 있겠다.



류큐열도(위키백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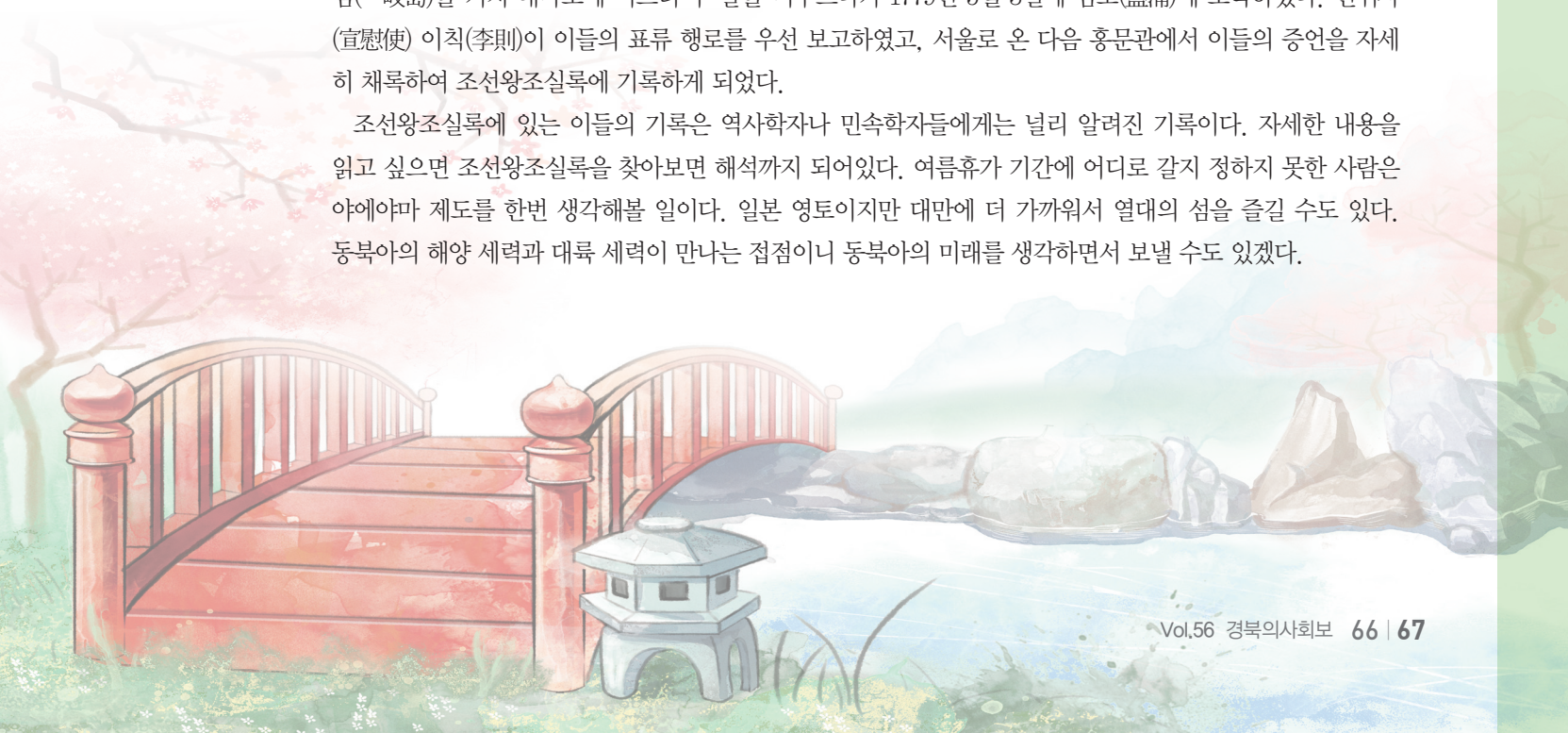
타라마시마(탈라마도)부터는 미야코 제도에 속한 섬들이다. 타라마시마(탈라마도)는 야에야마 제도의 이시가키 섬과 미야코 제도의 미야코 섬 중간에 있는 다라마 섬(多良間島)으로 추정된다. 이라부시마(이라파도)는 지금도 이라부시마로(伊良部島) 불리는 섬으로 미야코 제도의 본 섬인 미야코 섬에서 북서쪽으로 약 5km 상에 위치한다. 뎅고시마(뎅라미고도)는 미야코 제도의 본 섬인 미야코 섬(宮古島)으로 추정된다. 이들 섬들의 기후와 풍습에 대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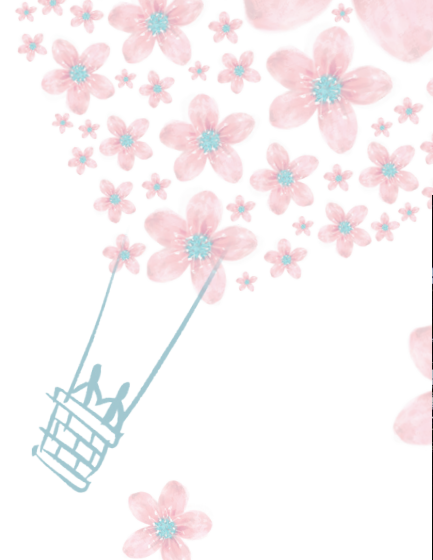
록은 윤이시마나 소내시마와 대동소이했다.

이들은 뎅고시마에서 2주야 반(사흘 낮 이틀 밤)을 항해해서 류큐 왕국의 수도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류큐 왕국에서 몇 달을 머무르며 후한 대접을 받았다. 어느 날 이들은 국왕의 행차를 목격하게 된다. 앞의 가마에는 국왕의 어머니가 타고 어린 국왕이 뒤를 따랐다고 했는데 이 어린 왕은 류큐 왕국의 제2 쇼씨(尙氏) 왕조의 제3대 국왕인 쇼신왕(尙眞王, 재위 1477년~1527년)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아직 어려서 어머니가 섭정을 하던 때였을 것이다. 당시 류큐 왕국에는 강남인(江南人) 및 남만국(南蠻國)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석 달을 머무른 뒤 이들이 일본인 통역사를 통해 귀국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자 류큐 왕국에서는 강남을 통해 귀국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일본을 통해 귀국하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생각하고 일본을 통해 귀국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류큐에서 많은 선물을 받고 일본인 통역사의 도움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큐슈의 사스마변(지금의 가고시마)에서 한 달을 머무르고, 해로와 육로를 통해 하카다에 도착하였다. 당시는 오우치(大内氏)와 쇼니씨(小二氏)가 큐슈 북부의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 오우치씨가 이기고 있을 때였는데 쇼니씨의 군사가 효수되어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다. 하카다에서 5,6개월을 머무르고 이키섬(一岐島)을 거쳐 대마도에 이르러 두 달을 머무르다가 1779년 5월 3일에 염포(鹽浦)에 도착하였다. 선위사(宣慰使) 이칙(李則)이 이들의 표류 행로를 우선 보고하였고, 서울로 온 다음 홍문관에서 이들의 증언을 자세히 채록하여 조선왕조실록에 기록하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이들의 기록은 역사학자나 민속학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기록이다.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면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해석까지 되어있다. 여름휴가 기간에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사람은 야에야마 제도를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일본 영토이지만 대만에 더 가까워서 열대의 섬을 즐길 수도 있다. 동북아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접점이니 동북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보낼 수도 있겠다.





무박 화대(華大) 종주기



노진우 원장
참사랑외과의원(영주)

'화대(華大) 종주'란 지리산의 등산 코스들 중 하나로서 화엄사에서 노고단을 올라 천왕봉까지 능선길을 걸은 뒤 대원사로 하산하는 등산길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인 지리산엔 수많은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만, 이 산의 이름 있는 봉우리들을 모두 통과하는 화대 종주야말로 지리산 등반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스는 도상 거리가 44km에 이르고 거쳐 가는 봉우리만도 18개에 이르는데, 화대 종주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지리산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화대 종주는 2박 3일 또는 3박 4일의 일정으로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장거리 산행을 즐기는 이들은 무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44km의 여정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화대 종주는 아마추어 등반 애호가까진 장거리 산꾼으로 거듭나는 관문과 같은 코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3년 반 전 등반에 입문 한 후, 늘 화대 종주를 꿈꿔 왔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 못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결행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근무를 마친 후 차를 몰고 대구까지 간 다음 서부정류장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남원까지 이동하여 늦은 저녁을 먹고 택시를 타고 화엄사로 향했습니다.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하고 화엄사를 출발할 시각은 자정.

예전의 화엄사는 지리산 등반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였으나 성삼재를 통과하는 도로가 열리면서 그 곳을 들머리로 삼는 이들이 많아져서 이곳은 이제 한적한 등로가 되었습니다. 길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꿉니다.

▼ 아침 이슬 머금은 지리산 철쭉. 이즈음의 지리산 능선길은 온통 철쭉꽃으로 가득합니다. 저지대의 철쭉은 이미 지고 없지만 여기는 이제야 봉우리를 터뜨립니다. 고산지대에 피는 철쭉은 차가운 밤공기에 꽃물이 빠져 마치 진달래와 같은 연분홍의 꽃을 피웁니다.





01

01 명선봉 근처에서 맞이한 일출.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여명 속에 산을 오른 뒤 맞이하는 일출은 늘 남다른 감동을 줍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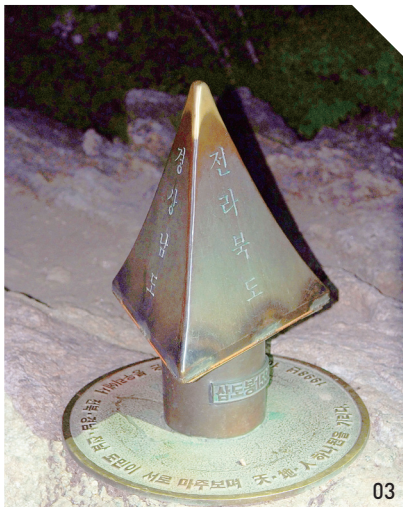
02 아침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지리산. 수많은 지리의 연봉과 능선들이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등산 입문 후 지리산을 여러 번 찾았으나 화엄사를 통해서 오르는 건 대학 시절 이후 33년 만입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하계 수련 코스로 이곳을 찾았을 때는 4박5일간의 식량과 야영 장비에다 여학생들의 짐까지 옮겨 넣어 돌덩이처럼 무거워진 배낭을 메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올랐던 곳인데 오늘은 비교적 가벼운 등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완만한 경사길로 시작하여 차츰 경사도를 높혀가던 길이 국수등에선 제법 가팔라지더니 집선대를 지나니 된비알이 됩니다. 등산객의 코가 땅에 닿을 듯하다고 '코재'라고 한 다지요?

2시간여 오르막길과 씨름한 끝에 무넝기에 닿습니다. 노고단에서 전북 쪽으로 가는 물줄기를 화엄사 쪽으로 돌렸다고(물넘기) 해서 '무넝기'란 이름이 붙은 이 고개는, 대학 시절 무거운 배낭과의 사투 끝에 이곳에 다다른 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날렵한 걸음으로 지나 가던 아가씨를 멍하니 쳐다봤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등산의 고수였을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초보자였을지는 지금도 궁금한 일입니다.

무넝기에서 노고단 고개까지 약간의 오르막을 더 올라가니 드디어 지리산의 주능선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천왕봉까지는 25.5km입니다. 출발! 지리산 종주길에서 가장 평탄한 길인 돼지령과 피아골 삼거리리를 지나 임걸령에 도착해서 지리산에서 제일 물맛이 좋다는 임걸령 샘물로 목을 축입니다. 임걸령은 조선 명종 시대에 이곳에 본거지를 뒀던 초적 '임걸년'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이 근처에서 관련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답니다.

임걸령에서 식수를 보충하고 40분여 더 길을 재촉하니 삼도봉에 이릅니다.



03

03 삼도봉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세도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래서 정상엔 이런 독특한 모양의 정상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도봉의 옛 이름은 '날라리봉'입니다. 이곳의 바위가 '낮'의 '날'을 닮았다고 해서 '낮날봉'이라 했던 것이 와전되어 '날라리봉'이 되었다는데, 예전 이름이 훨씬 멋진 것 같지 않습니까?





04



05



06

- 04 형제봉에 이르면 지리산 종주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위 중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바위 때문에 형제봉이란 이름이 붙었겠죠?
- 05 칠선봉 근처에 있는 망바위에 오르면 앞으로 지나가야 할 봉우리와 능선이 한눈에 보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칠선봉, 영신봉으로부터 촛대봉, 연하봉, 제석봉, 천왕봉, 중봉, 씨리봉까지 일망무제로 펼쳐져 있네요.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 06 철쭉꽃이 만발한 세석평전입니다. 이원수 시인이 작사한 동요 고향의 봄에 나오는 가사처럼 '울긁불긋 꽃 대궐'입니다.

삼도봉은 일출로 유명한 포인트이지만 아직 시간이 너무 이르므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합니다. 지루한 551계단을 내려가 하동과 남원의 물물교역의 통로였다는 화개재를 지나고, 가파른 형제봉 구간을 힘겹게 올라 명선봉 쯤에 이르니 드디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잠시 일출을 감상한 뒤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이곳 명선봉부터 연하천, 벽소령 일대는 남부군의 냇이 서려 있는 이른바 '피의 능선' 구간입니다. 삼각고지를 지날 때는 이현상이 최후를 맞았다는 빗점골을 눈으로 가늠해 보며 우리 현대사의 아픈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고사목 위로 뜨는 시리고 푸른 달빛으로 '벽소 명월'이라는 이름을 얻은 벽소령을 지나면 아름답고 평탄한 산책길이 열립니다. 개인적으로 지리산 종주길에서 가장 아름답고 걷기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카메라 셔터 누르느라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늦어지게 됩니다.

다시 덕평봉을 가파르게 오르고 나면 살아서 천대를 받던 노인이 죽은 뒤엔 그곳을 지나는 모든 이에게 인사를 받고자 이 샘 위에 무덤을 썼다는 전설이 있는 선비샘을 만나고, 여기서 목을 축이며 다리섬을 한 뒤 다시 출발하면 종주길 최대 난코스 중의 하나인 칠선봉과 영신봉 코스를 만납니다. 가파르기 그지없는 칠선봉 오름길을 힘겹게 오른 뒤 조망이 뛰어난 망바위에서 잠시 주변 풍광을 즐깁니다. 이어서 끝없이 가파른 영신봉 철계단을 힘겹게 올라서니 드디어 철쭉 꽃 만발한 세석 평전에 다다릅니다. 천왕봉 5.1km 전입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밭 한가운데서 잠시 다리를 쉬며 햄버거로 원기를 보충한 뒤 다시 길을 나서는데 다리가 천근만근. 촛대봉을 오르는 길이 가파르기 그지없습니다. 그 후 삼신봉, 연하봉으로 이어지는 등로 또한 가파르기 짝이 없지만 연하봉 근처에서 펼쳐지는 연하선경은 잠시나마 피로를 잊게 해 줍니다.

장터목 대피소에 이르러 식수를 보충하고 다시 길을 나서는데, 오! 제석봉을 오르는 등로는 또 한 번 산객의 인내심을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제석봉을 지나 무거운 다리를 끌며 통천문 쪽으로 가는데 '심장마비 환자 발생 지점'이라는 팻말이 섬뜩하게 서 있습니다. 2년 전 CPR하던 산객을 직접 목격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천왕봉을 올라올 정도면 초보 산객은 아닐텐데, 무증상 관상 동맥 질환이 이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중년의 진지한 등산 애호가라면 증상이 없어도 관상 동맥 질환에 대한 검사를 미리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산에서 일을 당하면 골든 타임을 지키기가 힘드니까요.

통천문에서 천왕봉에 이르는 500m의 구간은 인내심의 마지막 시험대이지만 정상이 지척이라는 기대감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며 힘 풀린 다리를 재촉한 끝에 드디어 지리산의 주봉인 천왕봉에 섰습니다. 해발 1,915m, 우리나라 육지의 최고봉입니다. 화엄사에서 32.3km, 출발한지 13시간 만입니다.



- 07 우리나라 산에는 천왕봉이란 이름을 가진 봉우리가 많지만 지리산 천왕봉이야말로 그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해발 1,915m 섬을 제외한 남한땅에서는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 08 천왕봉에 서서 뒤를 돌아 보면 지금까지 걸어 온 지리산의 등뼈가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진 오른쪽편에 둥그스럼하게 가장 높이 솟은 봉우리가 반야봉이고 그 왼쪽 뒤편의 뾰족한 봉우리가 노고단입니다. 노고단에서 여기까지는 25.5km, 화엄사에선 32.3km입니다.
- 09 중봉에서 바라본 썩리봉과 치발목으로 이어지는 하산길
- 10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자연에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석봉. 그 제석봉에도 봄은 오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싶었는데 하산길은 또 하나의 큰 도전이란 것을 깨닫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급경사 내리막을 지나자마자 눈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중봉, 그리고 썩리봉. 그 후로도 11.7km의 하산길 내내 이어지는 크고 작은 오르막들은 다리 힘 풀린 등산객을 기진맥진하게 만듭니다. 취니물이 많아 '치발목'이란 이름을 가진 치발목 대피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새도 없이 갈길을 재촉합니다. 치발목 이후엔 무릎을 괴롭히는 너털지대가 끝없이 펼쳐지고 마지막 봉우리인 장단봉이 다시 한번 힘을 빼더니 하산 시작 4시간여 만에 드디어 유평 마을에 도착합니다. 대원사까지는 아직 1.6km 더 내려가야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포장된 임도여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자정에 화엄사를 출발하여 오후 6시에 대원사에 도착했습니다. 도상거리 44km를 18시간 동안 걸었네요. 그동안 성삼재-중산리 종주는 여러번 했지만 화대 종주는 그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화엄사-노고단 6.8km 구간의 가파른 등반이 그 후의 진행을 힘들게 했고, 결정적으로 천왕봉-대원사 11.7km의 하산 구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등산에 입문한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한라산 다녀와서 다리에 알이 났 이후 처음으로 장딴지, 허벅지가 빠근하네요.

무박 화대 종주는 장거리 산꾼의 입문 코스 같은 것이라 큰 숙제를 하나 한 느낌입니다. 혹자는 사서 고생인 길을 왜 가느냐고 합니다만 장거리 산행은 그것만의 치명적 매력에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러닝 하이를 느끼듯, 장거리 산행도 극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사용되지만 등산만큼 힐링 효과가 큰 운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이고요. 젊어서 다니는 산도 좋지만 중년의 나이에 오르는 산은 더욱 좋습니다. 젊은 시절엔 느낄 수 없었던 그 무엇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이끌리다 보면 이렇게 잠도 안 자고 하루종일 산속을 헤매는 미친 짓(?)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23회 기초의학학술대회 경주에서 성황리에 마쳐



임 현 술 조직위원장
제23회 기초의학학술대회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경주)

지난 5월 21일~22일 양일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제23차 기초의학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기초를 중심으로 한 통합연구 활성화”를 주제로 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한기생충학회·열대의학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해부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등 11개 학회와 MRC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등 2개 협의회, 1,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13개 심포지엄과 600편 이상의 자유연제 발표 형태로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기초의학학술대회는 국내·외 기초의학 석학과 연구자들의 연구 업적 발표를 통한 학문간 상호 이해, 국제 교류 및 기초 의학자 사이의 교류를 목적으로 1993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개최하였으며, 이번에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주관으로 경주에서 열렸다.

개막식에서 채종일 대회장의 개회선언, 임현술 조직위원장(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은 물론 기초의학과 공학, 인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동 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정부도 기초의학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달라”는 개회사가 있었다. 그리고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의 환영사, 남궁성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권건영 대한의학회 부회장, 강대희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협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김재왕 경상북도의사회장을 대신 하여 도황 부회장이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만찬에서는 경주 현 예술단의 공연 관람에 이어 남경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원)장과 최양식 경주시장의 환영사 및 건배 제의, 김용익 국회의원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축사와 건배 제의와 우수포스터상 시상이었다.

▼ 개회식 참석 단체 사진





01 개최식에서 개회사를 하는 임현술 조직위원장



02 격려금을 전달하는 도황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

만찬 후 신라의 달밤 기행으로 월정교, 첨성대, 월지(구 안압지)를 방문한 참석자들은 그 화려하고 은은한 신라의 멋에 흥겨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환호하고 사진을 찍기 위하여 동문서주하면서 즐거워하였다.

이번 제23회 기초의학학술대회는 기존 학술대회와 달리 1박 2일로 진행되었고,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가족, 역사와 함께하는 학술대회로 진행되었다. 포스터 발표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우수포스터상을 신설하였고, 잠시나마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 자연, 문화, 건축 속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자연과 역사의 길 위에서 나를 본다』는 역사문화 특별 세션도 진행하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번 학술대회는 경상북도 와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기초의학의 이해와 발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모범 사례가 되었다.

5월 21일(목)		
시 간	구 분	개회 학회명
11:00-	등록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생리학회 대한약리학회 대한의사학회 대한해부학회 MRC협의회&기초의학협회의회
13:00-13:40	개회식	
13:40-14:00	휴식	
14:00-17:30	각 학회 심포지엄 I	
17:30-18:00	휴식, 이동	
18:00-20:00	포스터발표상 시상/환영 만찬	
20:00-22:00	경주 단체 관광	

5월 22일(금)		
시 간	구 분	개회 학회명
08:00-	등록	기초의학협회의회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대한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역사 문화 특별 세션
09:00-12:30	각 학회 심포지엄 II	
12:30-13:00	포스터발표상 시상 폐회식	
13:00-18:00	오후 심포지엄 선택 개별 관광	

학 회 명	주 제	시 간	장 소
기초의학협회의회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	5월 22일(금) 11:00-12:00	3층 컨벤션홀
대한기생충학·열대의학회	감염병 현장진단 및 신속관리 On-site Monitoring System for Diagnosis of Infectious Diseases, Developing Novel Biomarker and Rapid Central Control	5월 21일(목) 14:00-17:30	105+106호
대한미생물학회 대한바이러스학회	새롭게 출현하거나 재출현하는 감염성 질환/ 감염질환과 면역 Emerging and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 Infectious Diseases and Immune Responses	5월 22일(금) 09:00-17:30	101+102 +103호
대한법의학회	우리나라에서 법의학의 사회경제적 역할 The Socioeconomic Role of Forensic Medicine in Korea	5월 22일(금) 09:00-12:30	105호
대한병리학회	미래의 병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Pathology in Future Medicine: The Next Step Forward	5월 21일(목) 14:00-17:30	201+202호
대한생리학회	말초 및 중추신경계에서 신경-면역 상호작용의 병태생리 The Physiology and Pathology of Neuro-immune Interactions in the Peripheral and Central Nervous System	5월 21일(목) 14:00-17:30	203+204호
대한약리학회	세포사멸과 질환 Cell Death and Human Disease	5월 21일(목) 14:00-17:30	103+104호
대한예방의학회	사회, 삶, 기술, 그리고 예방의학 Society, Life, Technology, and Preventive Medicine	5월 22일(금) 09:30-12:30	203+204호
대한의사학회	미시사로 보는 의학사: 미시사의 이론과 방법 History of Medicine through Microhistory: The Theory and Method of Microhistory	5월 21일(목) 14:00-17:30	101호
대한해부학회	발생학 연구의 최신 연구 경향 Current Prospects of Embryological Research	5월 21일(목) 14:00-17:30	102호
생화학분자생물학회	건강과 질병에서 세포 신호 전달 Cellular Signaling in Health and Disease	5월 22일(금) 09:00-12:30	201+202호
MRC협의회·기초의학협회의회	Physician-scientist의 현황과 기초의학 발전에 대한 역할 Present Status of Physician-scientist and Its Role in Future Basic Medicine	5월 21일(목) 14:00-17:30	205+206호
역사 문화 특별 세션	자연과 역사의 길 위에서 나를 본다	5월 22일(금) 09:00-12:00	104호



故 김석곤 원장님을 기리며

이 무슨 청천병력이란 말입니까?

원장님의 그 순수한 미소를 뵈게 지난 주인데, 이제 정말 마지막 입니까?

인명은 재천이라 하였지만, 우리 만나 정담을 나누면서 오랫동안 인생을 같이 하였으면 좋으련만 무엇이 급해 그리도 먼저 가야 했던 말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의사회를 위해, 또 주위 모두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이렇게 먼저 가시다니요.

원장님은 항상 밝은 웃음으로 주위를 즐겁게 하였으며 때로는 열정적으로 의료현안에 대해 토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여기 모든 이들이 당신 과의 이별에 슬퍼하고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시 의사회 회원 모두는 원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생전에 그토록 애쓰셨던 의권 쟁취를 이루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천국에서 편히 쉬기 바랍니다.

훗날 그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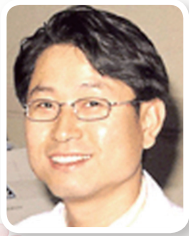
2015. 4. 22

안동시의회 회원일동



최경수 회장
안동시의회
최비뇨기과의원(안동)

힌두사원에서 만난 소녀



김성우 과장
안동성소병원 영상의학과(안동)

힌두 최대명절 중 새벽에 힌두사원에서 만난 소녀.

검고 큰 카메라를 든 낯선 남자가 포즈를 요구해도, 해맑은 미소로
맞아주는 이 소녀가 잊혀지질 않는다.

아마, 발리섬의 낙천적이고 힌두교의 종교적인 색채까지 띤 미소가
아닐까 생각해.



제42대 집행부 3년 주요 사업성과보고

제42대 집행부(회장 정능수)는 나를 따르라는 'follow me'보다는 함께 감시다 라는 'go together'를 기조로 '참여와 소통을 통한 화합', '기부문화와 봉사활동을 통한 존경 받는 의사상 확립', '선도적 의료정책을 입안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라는 3대 목표로 회원 권익보호와 300만 도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존경받는 의사상 확립을 노력한 바, 그간 3년간 회무를 결산해 본다<편집자 주>.

I. 참여와 소통을 통한 화합

1.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본회 춘계종합학술대회,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행사가 개최되어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였음.

- 제34회 의사의 날 : 2012. 5. 19(토)~5. 20(일), 경주코오롱호텔
- 제35회 의사의 날 : 2013. 5. 25(토)~5. 26(일), 경주코오롱호텔
- 제36회 의사의 날 : 2014. 5. 17(토)~5. 18(일), 경주코오롱호텔

2.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 2012년 등반대회 : 2012. 5. 13(일), 충북 괴산 청천면 도명산-낙영산
- 2013년 등반대회 : 2013. 10. 13(일), 영천 은해사 일원(팔공산 중암암)

- 2014년 등반대회 : 2014. 10월 19일(일), 경산 팔공산 깃바위

3. 회무홍보용 의사회보 발간

본회는 회무 안내와 더불어 시군의사회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경북 의사회보'를 계간으로 발간하여 회원 및 유관 기관에 배부하였음.

4. 2013년도 회원명부 발간



본회는 신규 회원의 정보와 기존회원의 변경된 정보를 담은 '2013년도 회원명부'를 발간하여 전체 회원에게 배부하였음.

5. 회원복지 증진사업 전개사업

본회는 의사회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회원간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엠스클럽의성C.C와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간 MOU협약을 체결하여 회원과 가족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 하였음.

6. 본회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본회 기존 홈페이지(www.igbma.or.kr)를 활용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활용도가 높은 스마트폰으로 회무소식을 빠르게 전달 할 수 있게 하였음.

7. 전북 · 경북의사회 친선행사



본회와 전라북도의사회는 양 지역 의료인 상호간의 우의증진을 위해 1987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친선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음.

- 제27회 : 2012. 10. 27(토) ~ 10. 28(일), 경주 블루원리조트
- 제28회 : 2013. 9. 28(토) ~ 9. 29(일), 전북 부안 바다호텔
- 제29회 : 2014. 9. 20(토) ~ 9. 21(일), 안동 리첼호텔

II. 기부문화와 봉사활동을 통한 존경 받는 의사상 확립

1. 봉사기금 마련 친선 골프대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의사회장배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였음.

- 제1회 : 2012. 9. 2(일), 블루원 상주C.C. 후원기금 2,494만원(연간)
- 제2회 : 2013. 9. 8(일), 제니스송라C.C. 후원기금 2,403만원(연간)
- 제3회 : 2014. 9. 28(일), 엠스클럽 의성C.C. 후원기금 2,379만원(연간)

2.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의료소의 지역의 실질적 의료 제공을 위한 환자진료와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일환으로 의학교육,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기증,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학분야 연수교육, 결혼이주여성 친정국가 보내기 사업 등을 위주로 한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음.

- 2013년도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 슬 로 건 : '사랑의 인술로 내 가족처럼 치료하겠습니다'
 - 봉사일정 : 2013. 7. 23(화)~7. 28(일) 왕립군외과학연구소
 - 진료인원 1,254명, 참가인원 63명
- 2014년도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 슬 로 건 :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 봉사일정 : 2014. 7. 22(화) ~ 7. 27(일), 캄보디아 왕립군외과학연구소
 - 진료인원 2,850명, 참가인원 56명
- 캄보디아 의사 초청 연수교육
 - Dr. KY WATANAK(1982. 2. 1생),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소화기내과(2014. 7. 28~2015. 1. 22)

3. 캄보디아 아기 구순열 수술 시행



본회에서 캄보디아 구순열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의료낙후지역인 캄보디아에서 수술을 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2회에 걸쳐(2014. 10. 15, 2015. 3. 27) 수술을 진행하였음.

4. 구미 불산 사고 피해지역 무료진료



불산누출 사고로 피해를 입는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일대와 임시 이주한 구미환경자원화시설(70명 이주)을 위문 방문하고, 지난 2012. 10. 13(토)~10. 14(일), 구미코에서 불산가스 피해 주민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음.

5.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불우시설 지원



연말연시를 맞아 본회와 시군외사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희망나눔을 실천하였음.

6. '함께 하는 세상' 공동사업 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 등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함께 하는 세상' 공동사업 협약을 지난 2013년 1월 29일(화), KBS대구방송총국에서 체결하였음.

7. 사회공헌 파트너십 구축 협약식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와 경북적십자사는 다양한 사회공헌과 인도주의 활동의 동반자가 되어 이웃사랑과 국제봉사활동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사회공헌 파트너십 구축협약식을 지난 2013년 8월 17일(토), 노보텔에서 체결하였음.

8. 경북북부교도소에 의료장비 기증



경북북부교도소 수용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3년 8월 28일(수), 경북북부 제3교도소를 방문하여 이비인후과 진료세트, 안과 진단장비, 안경테를 기증하였음.

9. 울릉군보건의료원 및 독도경비대 격려 방문



울릉군보건의료원과 독도를 수호중인 경비대원을 지난 2014년 6월 7일(토)~6월 8일(일) 방문하여 격려하고 의약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였음.

10. 학술상 및 봉사상 수여

- 제4회 : 학술상-문성수(동국대학교의과대학 교수), 봉사상-정만진(경북북부제3 교도소 부속의원 원장)
- 제5회 : 학술상-양승부(순천향대구미병원 교수), 봉사상-백현우(영주 백현우 외과의원 원장)
- 제6회 : 학술상-이관(동국대학교의과대학 교수), 봉사상-청강장학회(이석균·박경희, 청십자내과유외과의원)

11. 동국대 의전원·의대 장학금 기탁

지역사회의 훌륭한 의료인을 양성하고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재학생에게 매년 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12. 세월호 침몰사고 및 필리핀 태풍피해 성금 전달



- 세월호 침몰사고 성금 : 15,000,000원
- 필리핀 태풍 피해 성금 : 3,080,000원
- 필리핀 출신 결혼여성 지원 : 5,000,000원

Ⅲ. 선도적 의료정책을 입안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1. 본회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



의료계의 건설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워크숍 주제발표 :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청소년기 문제해결과 학부모를 위한 의사의 역할, 의료봉사단 활동계획,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 의료현안에 대하여

2. 의협회장과의 의료현안 정책간담회



지역의사회와의 소통 등 최근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협회장과의 정책간담회를 2012년 10월 18일(목) 19:30, 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3.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신고센터 운영

건강검진관련 불법 환자유인행위 근절 및 건강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건강검진 및 단체예방접종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위반사례 접수, 심사, 결과조치를 하고 있음.

- 일간지 광고 : 2013년 3회, 2014년 3회
- 포스터 제작 : 2회

4. 할매·할배의 날 홍보 포스터 제작 홍보



본회는 '할매·할배의 날' 홍보 포스터 2,000매를 제작하여 시군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음.

5. 제1회 한마음 전국 의사 가족대회



전국 의사 가족대회는 의사회원 및 가족들의 화합과 공감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참석하여 지난 2012년 10월 7일(일) 13:30,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였음.

6. 2013 전국 의사 절기대회 개최



회원 약 2만 5000여명 참석하여 정부의 규제 일변도 의료정책을 규탄하고, 전문가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총력 투쟁을 벌이기로 다짐하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2013 전국 의사 절기대회'가 2013년 12월 15일(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개최되었음.

7.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 의사 절기대회



정부의 원격의료·영리병원 추진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장외 투쟁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에서 시작하여 경남·대구를 거쳐 지난 2013년 12월 9일(월), 경주시내에서 가두행진을 하고, 인터볼호텔에서 본회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 연석 회의를 열어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하고 구호제창을 하였음.

Selective Serotonin 2C Receptor Agonist

BELVIQ® (lorcaserin HCl)



13년만에 FDA 승인 받은 식욕억제제

- 2 years clinical trials
- 식욕억제와 포만감 증가



소화성궤양 치료제 알지드액 (알긴산나트륨)

역류성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위염 및 소화성궤양에 **빠른 증상 개선**

천연 다당체로 소화관 흡수가 되지 않아 **안전성 우수**

지혈 + 치유 + 자각증상 개선 **Triple action**



Green Light
Smile Life

[원료약품의 분량(100mL 중)] 알긴산나트륨(N.F.) 5.0g **[성상]** 초록색의 점성이 있는 액제 **[효능·효과]** 1. 다음 질환의 및 자각증상의 개선 :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2. 역류성식도염에서 오는 자각증상의 개선 3. 위생검의 출혈시의 지혈 **[용법·용량]** 1. 위·십이지장궤양 및 미란성 위염의 지혈 및 자각증상 개선과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 : 알긴산나트륨으로서 보통 1회 1~3g(이 약 20~60mL)을 1일 3~4회 공복에 경구투여한다.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코 존데(sonde)를 이용한 경비투여를 한다. 2. 위 생검 출혈 시의 지혈 : 이 약으로서 보통 1회 0.5~1.5g(이 약 10~30mL)을 내시경적으로 투여하고 1회 1.5g(이 약 30mL)을 경구 투여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때때로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기타 이 약의 복용 시 주의할 사항 : 위산결핍증에서는 겔화(gelation)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 **[포장단위]** 20mL × 1포, 20포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기밀용기, 실온보관(1~30℃), 제조일로부터 36개월 **[보험청구코드]** 651203960



※ 본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